

임마누엘 [화평호] Vol.15, No.2, AUG 27, 2017

# *Emmanuel*





## 말씀의 창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5:9)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MATTHEW 5:9, NIV)

# Contents

Vol.15, No.2, Aug. 27, 2017

<b>I. 화평호를 열며</b>	02	말씀의 창 - 마태복음 5:9
	04	담임 목사 칼럼 -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b>II. 행진 시리즈</b>	06	믿음의 선진들 - 윌리엄 캐리
	10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도미니카 최광규 선교사
	12	목자/부목자 수련회 보고서 - 원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4	올리브 블레싱을 소개합니다 - 올리브 블레싱이란?
	16	임마누엘 평원 소개 -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b>장애인 사역 특집</b>
	18	사랑교육부를 소개합니다
	19	장애인 주일 행사 이모저모
	20	장애인 주일 간증
	22	장애인 주일 행사 참여 소감문
	24	양화진 선교사 이야기 - 한국 선교의 개척자 H. G. 언더우드
<b>III. 실민인 물기</b>	26	전도팁- 신앙생활의 중심은 식탁이다
	28	임마누엘 레시피 - 찹쌀찹쌀 찹면
	30	시가 있는 풍경 - 참고 또 참고
	31	크리스천 명언 - 앤드류 머레이
	32	성경 속의 도량형 - 성경의 부피 단위: 에바(Ephah)
	34	성경 속의 절기와 풍습 - 초막절
	36	찬양팁 - 보좌에 계신 분께 집중하십시오
	38	임마누엘 카툰
	40	나를 변화시킨 한 권의 책 -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P31
	42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44	올바른 기독교 용어 - 예배와 관련된 용어들
	46	크리스천의 올바른 자녀 양육 - '아버지의 자녀양육'
<b>IV. 임마누엘 사람들</b>	48	나의 사랑하는 책 - 나의 사랑하는 책
		<b>천사도 흠모하겠네</b>
	50	전도 간증 - 누가 이 분을 모르시나요?
	52	도미니카 단기 선교 간증1 - 트립? 미션!!!
	54	도미니카 단기 선교 간증2 - 선교하시는 하나님
	56	나의 노래 - 부정의 힘
	58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 짧은 시간 1시간 20분
	60	푸른 목장 -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
	62	행복한 사람들 - 2017 VBS
	66	팀 소개 - 사랑의 장터팀
	68	크리스천 영화방 - 서서평
		<b>새가족 소개</b>
	70	이도현, 정세연 가족 - 목장, 집에서 모이는 교회
	72	오민선, 마사야끼 가족 - 내게 필요한 오늘의 은혜



##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대개 부와 명예를 원했고, 가족과 함께 살아갈 집을 원했으며, 식구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성공과 행복을 원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런 것들 외에 돈 많이 버는 일자리와 사람들의 주목받는 외모와 쾌락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으로, 바로 평화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나 사람들은 평화를 사모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원하고 가정의 화평을 원하며, 나가서는 세계 평화와 나라의 안정을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복음 찬송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는 가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온통 크고 작은 갈등과 싸움, 대립과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회 구석구석마다 폭언과 폭력, 불화와 증오가 들끓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인간관계들이 깨어지고 가정들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다툼과 전쟁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불타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목말라 하며, 고독과 절망 속에 죽어갑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되어갈 것입니다(딤후3:1-4).

이런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의 관점에서 구분한다면, 사람들을 3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둘째 부류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며, 셋째는 화평이 나 다툼을 크게 일으키지 않는 중간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함께 사는 가족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솔직하게 말해준다면, 여러분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정확한 진단이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5:9).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순히 화평을 유지하는 사람(PEACE-KEEPER)이 아니라 불화와 분열을 치유하는 사람, 곧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PEACE-MAKER)을 말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TROUBLE-MAKER)의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등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싸움이 종식되고 그곳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있으나 마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싸움이 오히려 격화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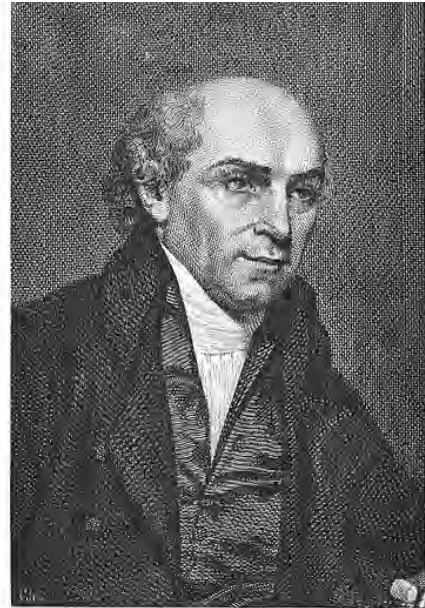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길은 하나입니다. 욕망과 죄에 늘 굴복하고 마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면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14:27, MY PEACE I GIVE YOU) 말씀하셨던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20:19, 21, PEACE BE WITH YOU.) 두 번 이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사 9:6, PRINCE OF PEACE)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멈추지 않는 한,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들, 곧 탐욕과 정욕과 소유욕과 지배욕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다툼과 전쟁은 최후의 심판 날까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욕망은 발달하는 물질문명과 함께 눈덩이처럼 점점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고통하는 세상, 평화를 원하면서도 끝없이 싸우는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실 때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삽시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갈등과 다툼이 있는 가정과 세상에 평화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글 손원배 담임목사

##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 1761-1834)



WILLIAM CAREY

### 구두 수선공이 위대한 Vision의 선교사로

윌리엄 캐리는 1761년 영국 노스햄프턴셔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당시는 두 발이 유일한 교통 수단이었기 때문에 구두 수선은 유망 직종 중 하나였고, 캐리는 구두 수선공이 되었다. 1779년 캐리가 19살 때, 한 기도 모임에서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동안의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전 생애를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기도한 후 성경 공부에 전념하였다. 그 당시 영국은 웨슬리와 조지 헛필드가 이끄는 영적 부흥 운동이 전 영국을 휩쓸고 있었으나 아무도 세계 선교에 대해선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캐리가 ‘죽 선장의 마지막 항해’ 라는 책을 읽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아무도 그들에게 기독교를 전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명예도 유익도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 책을 읽고 있던 청년 캐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맥박은 힘차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케도니아인의 끈질긴 외침을 들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했다. 그때부터 캐리는 세계 지도에 이미 알려진 나라의 인구, 종교 등을 표시하며 선교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 지도는 그의 기도 목록이었다. 그는 세계 지도를 꼭 끼안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종이 되었다.

18세기 영국교회는 칼빈주의의 영향으로 선교 운동에 눈을 돌리지 않았으며, 선교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으로 국한했다. 세계 선교에 눈을 뜨게 된 캐리는 교회 안의 무감각한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워야겠다고 방향을 잡았다. 어느 날 목사들의 모임에서 캐리가 해외 선교에 대한 그의 원대한 계획에 대해 열변을 토하자 한 원로 목사가 그에게 말했다. “이 보게 젊은이,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한다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걸세.” 이것은 그의 선교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말이었다. 그러나 캐리 안

에 불붙은 세계 선교에 대한 vision과 성령의 불은 더욱 크게 타올랐다. 1792년 봄, 그는 ‘이교도 개종에 대한 크리스천의 의무에 관한 연구’라는 책을 썼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세계 선교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임을 역설하였다. 이 책은 루터의 95조 항과 함께 베스트 셀러가 되었으며, 세계 선교 열풍을 전 유럽으로 퍼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늘 다음과 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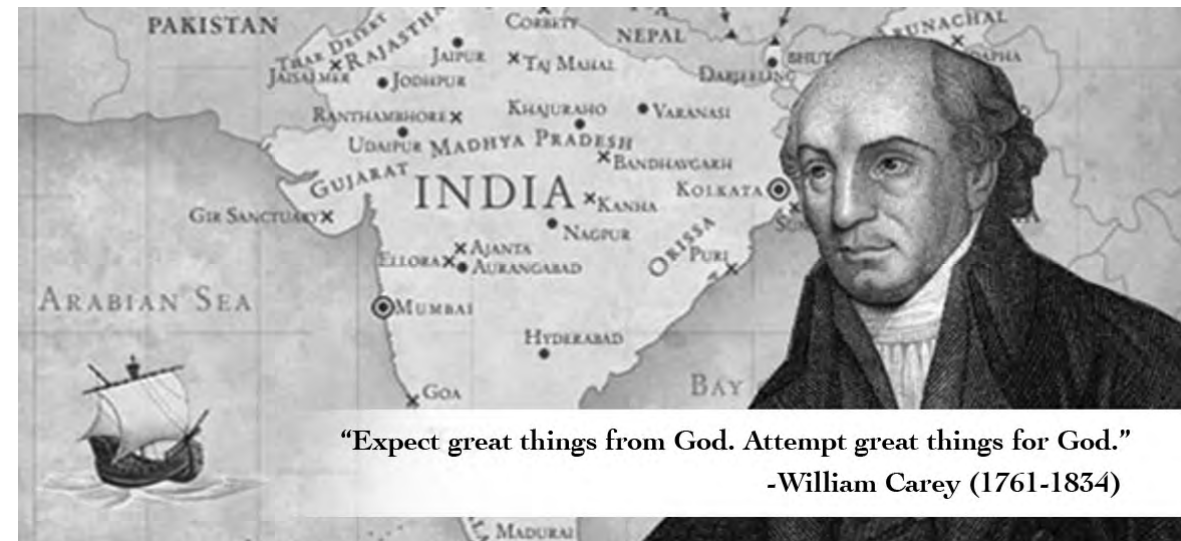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많은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통해 위대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실 때인 것을 역설했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시도하라고 했다. 그의 비전이 넘치는 메시지에 감동한 목사들이 당장 그다음 날로 유명한 침례교 선교회를 만들었다. 그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리라는 믿음으로 현실에 절망치 않고 끈질기게 도전하였을 때 18세기의 타락한 영국을 구원하였을 뿐 아니라 세계 각지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였다.

### 위대한 시도

1793년 캐리가 32세 되던 해, 그는 인도 영혼들을 향한 상한 목자의 심정을 안고 인도 선교사로 가고자 결단했다. 그러자 그 길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이 나타났는데 첫째는 그의 아버지였고 둘째는 그의 아내였다. 그러나 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 부르침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가 없소.” 캐리는 사랑하는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 셋째는 교회 성도들이었다. 하비레인 교회의 성도들은 캐리와 같은 훌륭한 목회자를 잃는다는 생각으로 교회의 장래를 위해 절대로 목사님을 보내지 않겠다고 나섰지만, 곧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 지원을 하게 되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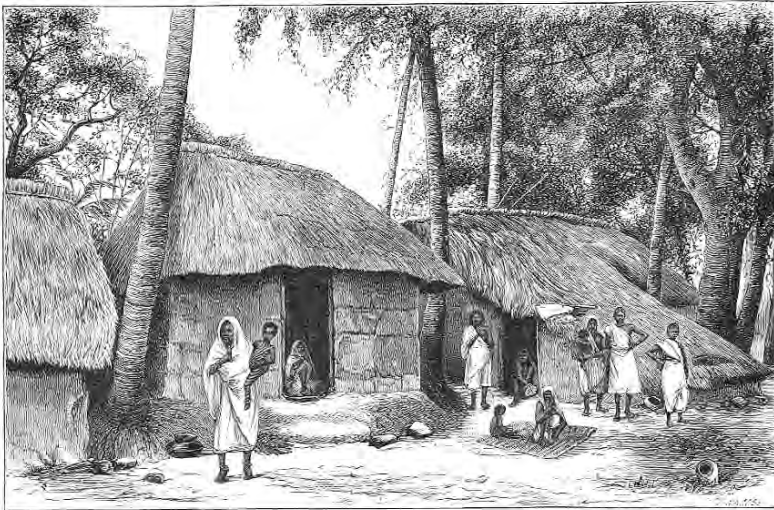
-William Carey (1761-1834)

우여곡절 끝에 그는 사랑하는 가족 모두와 처제, 그리고 토마스라는 선교 동역자와 함께 인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고, 그들이 인도 땅에 도착했을 때, 인도는 선교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 힌두 과부들은 사티(SATI)라는 제도에 따라 남편이 죽으면 함께 불에 타야 했고, 갠지스 강가에선 ‘GUNGA MAI KAI JAI(갠지스강의 여신이며 영광을 받으소서)’ 외치며 어린아이들을 악어가 득실한 강에 던지는 그런 미신이 가득한 나라였다. 또, 당시 인도는 동인도 회사의 점령 아래 있었고, 선교를 절대 금지하고 있었다. 캐리는 추방을 면하기 위해 내륙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은 말라리아가 창궐한 곳이었다. 아내 도로시와 큰 아이 2명은 이질에 걸려 한 아들을 잃게 되었고, 아내는 정신병에 걸리게 되었으며, 열대 기후와 입에 맞지 않는 음식들로 고난이 되었다.

멋지게 선교를 하려던 이상적인 꿈이 산산이 깨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캐리는 그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모든 근심을 내어 맡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설사 이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고귀한 사명이 맡겨진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캐리는 자비량 선교의 본을 보였다. 그는 결코 본국의 선교회를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고자 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인디고 공장의 감독으로 취업의 길을 열어 주셔서 충분한 선교비를 벌면서 선교의 기초가 되는 인도어 정복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었다. 1년 후부터 그의 위대한 시도가 구체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캐리는 성경 번역과 더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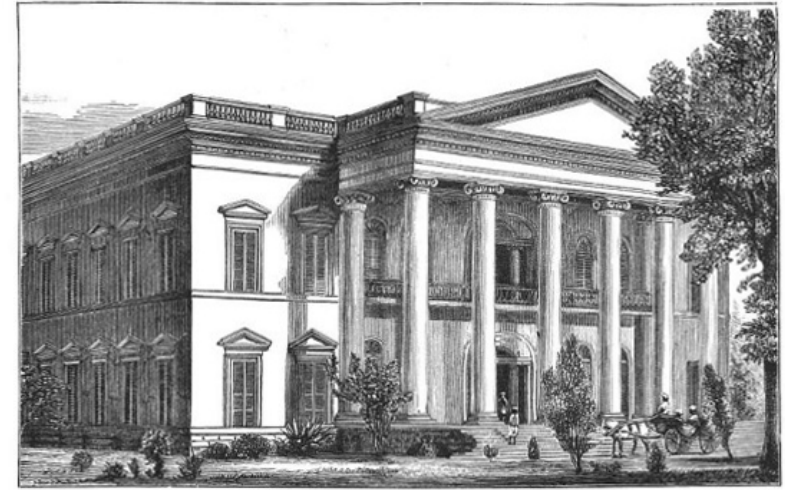
말씀을 전파하고 여러 학교를 세웠다. 그러나 벵갈에서 7년간 땀흘렸지만 단 한명의 인도인 개종자가 없었다. 큰 아픔이 아닐 수 없었다.

1800년, 19세기가 시작되었을 때, 동인도 회사의 추방령으로 캐리는 선교 기지를 덴마크 영내인 세람포르로 옮기게 되었다. 이곳에서 캐리가 인도에서 흘린 모든 눈물과 땀의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크리쉬나 팔이라는 첫번째 개종자가 탄생했다. 그가 카스트 제도와 우상 숭배를 거부하자 2천명의 군중이 그를 재판장으로 끌고 가



CHRISTIAN VILLAGERS, SERAMPORE

기도 했다. 그러나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즐기치게 일어나 그 후 18년간 600명이 세례를 받고 수천 명이 예배에 참석하는 승리의 역사가 있었다. 세람포르 역사가 흥왕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합심 동역에 있었다. 캐리와 워드와 마쉬만, 그들은 세람포르의 삼총사라 불렸는데 23년간 팀을 이루어 서로 간의 긴밀한 사랑의 교제로 힘을 얻으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 대형 화재로 인해 수년간 작업하여 완벽한 성경 원고와 두 권의 문법책, 다국어 사전들이 소실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캐리는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삼총사는 팀워크를 새로이 갖추고 다시 도전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낙망치 않고 도전하여 결국 수많은 인도 방언과 중국어, 버마어, 말레이어 등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 출판했다.



SERAMPORE COLLEGE

윌리엄 캐리는 이처럼 그 일생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함으로 인도선교의 기초를 쌓았다. 캐리는 1834년 73세의 일기로 그토록 사랑했던 인도 세람포르에 묻혔다. 윌리엄 캐리는 그의 그칠 줄 모르는 열정과 도전으로 18세기 침체한 영국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다. 그가 인도에 끼친 영향은 언어학적 업적, 교육적인 공로, 목회사역뿐 아니라 과부의 화형이나 유아 살해 같은 인도의 나쁜 관습을 폐지하고 좋은 전통을 계승시켜 나가는 데까지 미쳤다. 그러나 그의 업적은 인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도 국외적으로도 런던선교회,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우 선교회, 네덜란드 선교회, 교회 선교회, 영국 해외 성서 공회,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 미국 침례교 선교협회, 미국 성서 공회가 창설되어 오늘날 선교의 기틀이 되게 한 중요한 업적이 있다. 그는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세계 선교의 불을 당긴 위대한 믿음의 용사였다. 그의 믿음으로 근대 선교 역사가 시작되었고 19세기 선교 황금시대를 열게 되었다. 무엇보다 그 자신이 인도의 한 알의 썩는 밀알이 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는 진정 근대 선교의 문을 활짝 연 근대 선교의 아버지였다.

출처: [HTTP://WWW.SEATTLEONNURI.COM](http://www.seattleonnuri.com)

사진 출처: [HTTP://BLOG.NAVER.COM](http://blog.naver.com), [HTTP://WWW.KCJLOGOS.ORG](http://www.kcjlogos.org), [HTTP://WWW.WMCAREY.EDU](http://www.wmcarey.edu)

편집부 정리

## 존경하는 손원배 목사님과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께 JUNE 20, 2017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이곳 도미니카 선교사역을 지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귀한 단기선교팀을 보내주셔서 함께 선교지에서의 삶과 사역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도미니카 목장(최철수 목자 & 진요한 목자)에서 이곳을 위해 기도와 헌금으로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주님의 은혜로 계획했던 금년 사역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에는 일년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제 2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Dr. MILTON GUEVARA)과 중앙선거재판소장(Dr. MARIANO RODRIGUEZ)이 국가의 공익로운 사회와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교회 등 각 분야의 리더십들 200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개최된 “천국 잔치2017”는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100명의 결신자를 위해 기도하며 300명 정도를 초청했는데 85명이 결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이번에 결신한 형제자매들이 진정한 성도가 되기까지 많은 수고와 헌신이 요구됩니다. 이들의 신앙이 잘 자라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IGLESIA CANAAN)가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에 더욱 힘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임마누엘 단기선교팀이 방문했습니다. 청소년 3명과 장년 8명이 한 팀으로 와서 사역을 했는데 환상의 팀워크로 아름다운 사역을 했습니다. 팀장 류창명 집사님을 중심으로 박기한 목사님, 민경진 장로님, 그리고 여러 집사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협력하는 모습은 현지인들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VBS를 통해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가나안 교회에서는 청년리더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실을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베델교회에 농구장을 기증해 주셔서 큰 격려가 됩니다. 또 SEED폰과 중고 노트북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큰 도움이 됩니다. 기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송하는 모습/ 컴퓨터 교실 모습/ 농구장/ VBS 모습)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는 7월 1일에 있을 “도미니카 기도군대”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국가의 재앙을 막고 민족의 운명이 바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칠천 명의 기도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역을 책임지고 있는 최광규 목사가 지지치 않도록,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손 목사님과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JUNE 20, 2017\_도미니카(공)으로 보냄을 받은 최광규/선자 선교사



## 뭔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라일락 향기 가득한 5월, SCOTT VALLEY에 위치한 MISSION SPRINGS CONFERENCE CENTER에서 올랜도 비전교회 김인기 목사님과 함께하는 목자, 부목자 수련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란 주제로 1박 2일간 진행된 이번 수련회의 이모저모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일 저녁 6시, 미션 스프링스의 주차장은 목자님 가정의 차들로 빈자리가 하나 둘 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체크인 후 방배정을 받고 방 키를 받으신 목자, 부목자님들의 표정은 이번 수련회에 걸고 있는 기대 만큼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모처럼 일상에서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한 박자 쉬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가하신 모든 분의 표정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정성스레 준비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각자 배정된 방에서 짐을 푼 후 다시 WORSHIP CENTER에 모였습니다. 큰 십자가 뒤, 유리창문 너머 뻗뻗한 레드우드 숲이 보이는 예배당에서 목자, 부목자 부부 찬양팀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첫날 주일 은혜를 기대하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말씀을 전해주시신 김인기 목사님께서서는 미주 가정교회 대표를 맡고 계시며, 지난 가을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 집회를 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서, 이번 수련회에도 많은 목자, 부목자님들이 초빙을 원하셨습니다.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주제에 걸맞게 강사 목사님께서서는 목장 모임의 목적과 나아갈 방향들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옳은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처럼,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 목장으로 초대하여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된 증으로 임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이루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대예배당에서 어른들의 예배가 드러지는 동안 우리 자녀들의 수련회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유치K-1부를 담당하고 계신 송호영 전도사님과 초등부 김수에 전도사님께서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성껏 준비하시고 은혜롭게 인도해 주셔서 자녀들도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날 집회가 아쉬움 가운데 끝나고 모두 숙소로 돌아가 다음 날 집회를 위해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산 속에서의 상쾌한 아침을 맞으며 찬양과 함께 둘째 날의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목자, 부목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말씀하시고 또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므로 우리는 그저 기쁜 맘으로 주님만 따라가길 당부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난 후 이번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소그룹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눔의 주제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1. 교회에 대한 생각의 변화 2.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변화 3.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본질에 대한 나의 구체적인 헌신의 결단 등이었습니다. 짧은 소그룹 나눔을 통해 목자, 부목자님들이 받은 은혜와 결단을 몇가지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자 직분에 대한 영적 육적 부담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에 기대를 갖게 되었다.

\*본인이 하려는 생각을 버리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인해 새 생명을 향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목장을 통한 영혼 구원을 통해 매일 훈련되고 변화되는 나의 모습, 목원들의 모습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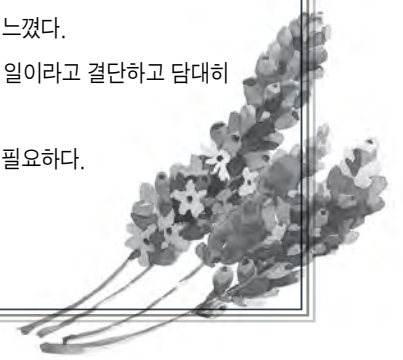
\*영혼을 섬기면서 지낸 5개월이 내 안에 판단하는 마음, 기대 그리고 실망하는 과정 속에서 절제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영혼들을 다스리시는 손길을 느꼈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영혼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결단하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

\* 목자, 부목자들에게 지속적 훈련을 위한 컨퍼런스, 세미나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신앙 생활은 불편한 것이라는 목사님 말씀에 도전이 되었다.

\*잘하려고 하지말고 오~~래 충성하자.



소그룹 토의를 마치고 다소 긴장되고 딱딱한 분위기를 깰 수 있는 특별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성경 퀴즈와 재미있는 년센스 퀴즈 등으로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을 보냈는데, 특히 이번 수련회에서는 예년에 없던 다양한 시상이 추가되어 재미를 더했습니다. 최다 출석 상은 예능 평원과 산호세 평원으로 돌아갔고, 추첨을 통해 담임 목사, 평원 목사, 평원 장로 2시간 이용권이라는 기발한 상품도 주어졌습니다. 자녀들 또한 큐티와 소그룹 나눔, 그리고 야외 소운동회 등으로 맘껏 뛰노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함께 점심 식사 후 이들 간의 은혜로운 수련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껏 가장 많은 인원인 260여 명이 참석하여 지난해 안식년을 보낸 목자 부목자님들과 이번에 새롭게 헌신하신 분 모두에게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 가정교회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글 김인영 (남부 평원 서부 아프리카 목장 부목자, 편집부 편집팀)



## 올리브 블레싱이란?

휴스턴 가정교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평원 담당 목사의 아내로 남편 박기한 목사님과 여러 목장을 방문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은 부모님을 따라 목장에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문제 중 하나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일주일 168시간 중 고작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 빼앗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에게 주일에 한두 시간으로 믿음을 전수하기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전수가 아닌 신앙 강요가 되었고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주일 예배뿐 아니라 금요일 저녁 시간도 부모님을 따라 가정교회로 모이고 있으니 신앙 전수에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입니까? 여러 목장을 방문해보니 부목자님의 인도로 아이들과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목장도 있고, 자녀들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아이가 자신보다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 같이 노는 목장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목장은 부모님들의 나눔을 방해하지 않고 혹은 그 어떤 어른들의 방해(?)도 받지 않고 대부분 컴퓨터나 스마트폰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각 목장모임마다 자녀들의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는 있지만, 일정한 형식 없이 각개전투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열리는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올리브 블레싱을 소개합니다.

휴스턴 서울교회는 가정교회를 제일 먼저 시작한 교회답게 어린이 사역에 대한 고민과 기도와 열매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30여 개의 시작한 어린이 목장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현재 올리브 블레싱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목장 1부 사역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올리브 블레싱은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며 자녀들이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축복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왜 올리브 블레싱이냐고요? 어린이 목장이라고 하니, 마치 유치부와 초등학교 자녀들만 참석하는 목장이란 이미지가 있어서 새 이름을 두고 고민하다가 올리브 블레싱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 이름은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네 상에 둘러앉은 네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모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시편 128:3~4, 표준새번역).”는 말씀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성장이 느린 나무라 처음엔 아무 열매가 없지만, 5년에서 7년 정도 꾸준히 정성과 사랑으로 키우면, 꽃, 나뭇잎, 열매 등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올리브 블레싱도 처음에는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어도 꾸준히 하고 제대로 할 때, 그 열매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올리브 블레싱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 1) 인식의 전환

올리브 블레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자녀들과 어린이 목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해요. 목장에 참석하는 아이들은 목원들의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들과 같은 목원이자 VIP입니다. 또한, 어린이 목장은 어른들이 목장을 하는 동안 아이들을 방목하지 않기 위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공유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시간입니다.

#### 2) 부모들과 함께 앉기

이 시간은 재미있고도 진지한 시간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자녀들은 어른들 사이 사이에 앉아서 시작합니다. 아이들끼리 앉게 되면 서로 장난치느라 나눔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 3)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 준비하기

어른들도 갑자기 감사 제목이나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당황할 때가 있으시죠?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은 목장에 참석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미리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나눔 시간이 길어지지 않고 아이들도 부담 없이 나눌 수 있어요. 목장 모임을 가는 차 안에서나, 목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봐 주세요. “한 주간 감사한 제목 뭘 나누고 싶어?”

#### 4) 큰 아이들부터 나누고 경청하기

나눌 때는 가급적 큰 자녀들이 먼저 나누도록 합니다. 자녀들이 나눈 내용에 대해 부모님들이나 다른 아이들이 평가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나눔 그대로를 경청해줘야 합니다. 어린 유아부나 유치부 자녀들은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스스로 나눌 수 있도록 하고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간단한 추가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요.

#### 5)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 기록하기

어른 목자가 직접 아이들의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수첩에 적고 정리해도 되고, 아니면 목원 중 한 분에게 정리하는 사역을 맡기셔도 됩니다.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지난번에 내놓은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는지 물어봐 주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 6) 자녀들을 위해 축복기도 하기

자녀들이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모님이 함께 축복기도를 합니다. 목장 내의 어린이들은 모두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할 뿐 아니라 때로는 다른 가정의 자녀들을 끌어안고 기도함으로써 이 자녀들이 목장에서 함께 믿음을 전수 받는 우리의 자녀임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 7) 목장 십계명 만들기

각 목장에 맞는 10가지 계명을 만들어 매주 아이들과 함께 읽고 실천합니다. 공손한 말 하기, 스마트폰 사용 절제하기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블레싱과 어린이 목장 2부를 위해 북부 평원을 중심으로 어린이 목장 준비팀과 가정교회 사역원에서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2017년 가을부터는 올리브 나무를 키우듯 각 목장마다 자녀들과 믿음을 공유하는 시간이 사랑과 인내로 더욱 풍성해지길 기대합니다.

글 김숙경 사모 (남부 평원)



#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 -북부 평원 이야기-

안녕하세요? 박성호 목사입니다. 제가 산호세에 온 지도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네요. 도무지 비라고는 볼 수 없는 짙은 여름 하늘을 대하기도 지쳐갈 무렵, 쌀쌀한 공기와 함께 시작된 연말의 우기를 그럭저럭 견디고 나니 어느덧 1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가장 소중한 경험이 있었다면 2017년에 다시 시작된 목장(가정교회) 생활에 동참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2016년에는 온 교회적으로 성경통독이 진행되고 있었고,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일독 소그룹 모임이 열렸습니다. 1년 동안 안식을 가졌던 목자와 부목자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다시 목장을 이끌고 가실지 저는 궁금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한해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짧았던 반년 동안의 목장 생활이지만, 제가 지켜본 목자들의 헌신과 목원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 하려면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지 대단한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국 한 그릇과 반찬 몇가지의 식탁이었지만, 소박한 식사와 삶의 나눔, 그리고 겸손히 무릎 꿇는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옳다고 믿는 한 방향을 향해 군소리 없이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을 좀 자랑해 볼게요. ^^;

북부 평원은 실리콘 밸리의 한인들이 밀집해 사는 산타 클라라(SANTA CLARA)지역과 서니베일(SUNNYVALE)지역을 가리킵니다. 목장 구성은 두 타운에 사시는 목자들의 가정

을 중심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성도님들이 목장 식구가 되어 가정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평원지기로 황의철 장로님(황복림 권사님)가정이 섬기고 계시며, 5개 초원(김동규, 김종필, 한승훈, 한의상, 한준수)에 속한 23개의 목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명의 목자들 중에서 두 목자님(윤정숙, 이수지)은 여성들로만 구성된 목원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23개의 목장에서 어린 자녀들이 함께 속한 목장은 12개의 목장(김동규, 송규현, 이평우, 김종필, 손진우, 송오빈, 신상훈, 김웅, 이종상, 최영훈, 노범준, 최상훈 B)이며, 나머지 11개의 목장(정광록, 김종길, 한승훈, 이상필, 이수지, 한의상, 김경진, 김성범, 한준수, 윤정숙, 이기수)은 자녀들이 없거나 다 성장하여서 부모님들이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 혹은 주일 오후에 가정에서 모이고 있으며, 2개의 목장(이상필, 이수지)은 목원들의 형편상 주일에 예배를 드린 후에 교회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목장에는 약 108가정이 소속되어 있으며 60대 이상의 어르신들로만 우아하게 구성된 목장도 있고 30~40대 이하의 목원들이 좁은 아파트에서 아기들과 함께 복작대는 그런 목장도 있습니다. 마치 천국의 모델처럼 저마다 생김새대로 그렇게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상대적으로 자녀들이 함께하는 목장이 더 시끌벅적하고 정신이 없는 반면에 부모님들만 속하신 목장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깊이 있는 나눔이 있습니다.

북부 평원은 가정교회 사역원에서 어린이 목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2017년 하반기에는 목장에 속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더 바람직하게 예배하며 신앙 안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을부터는 목장에서 올리브 블레싱이 제대로 실행되기를 원하며, 우리 자녀들이 그저 부모님을 따라와 시간만 보내는 곳이 목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목장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처음 목자로 임명받고 맘을 흘리며 헌신하시는 몇 분의 목자님들도 계시고, 이미 오랜 세월을 가정교회에 헌신하여 베테랑처럼 여유롭게 사역하시는 목자님들이 다양하게 계신 곳이 북부평원입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동일하게 우리 목장에 존재하는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하나님을 참마음으로 사랑하기에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기쁨으로 섬기려 하는 장작불에 오래 놓인 가마솥 같은 은은

한 사랑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장 식구들이 다 참 좋아 보이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미소 짓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북부 평원에 사시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올해 목장에 참석하지 않으셨거나 쉬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열심을 내셔서 이러한 사랑의 나눔이 있는 자리에 함께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요일 4:11-12)

글 박성호 목사  
(북부 평원, 화요 여성 예배, 신앙 위원회 담당)



## 사랑교육부를 소개합니다

어린이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어른들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은 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자기가 누구이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때를 기다리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어쩌면 마음속으로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을 떠올리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사귀셨으며, 성경을 생각하던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아마도 나다니엘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찾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조상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주셨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



자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구주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을 마음에 품고, 몸으로 실천하며 사셨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하며,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교육부는 특별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이해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깊은 사귀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곁에 함께 있어 주고 (버디사역), 또한 별도의 예배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예배사역). 한편 아이들을 돌봄으로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의 각종 행사에 마음껏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돕고, 가정의 다양한 필요를 교회가 함께 도울 수 있도록 부모님들과 협력합니다(가정사역). 사랑교육부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글 서경의 전도사 (사랑교육부 담당)



## 장애인 주일 행사 이모저모 (DISABILITY AWARENESS SUNDAY)

‘장애인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는 싫으세요?’ 지난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장애인 직원이 건넨 물을 거부하며 비장애인 직원에게 다시 물을 달라고 요청한 사건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비틀어진 시선들을 본다.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는 아직 요원하다는 아픈 현실을 느낀다. 인구의 10%에 달하는 장애인들을 교회는 어떻게 품고 있을까? 지난 4월 23일 처음 이루어진 장애인 주일 (DISABILITY AWARENESS SUNDAY)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모아보기 위해 사랑교육부에서 주최한 계몽행사였다. 세계 여러 교회는 매년 한 주일을 정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교회의 역할을 상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우리교회도 올해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장애인 주일을 지키는 기쁨을 맛보았다.

장애인 주일 이벤트로는 최영훈 목자님의 간증, 시각장애인 한형의 형제님의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순서, JONI AND FRIENDS단체의 DIANE KIM 자매님의 청소년 및 PNEUMA청년들을 위한 강연, 장애인 사역에 대한 밀알선교단 김정기 목사님의 세미나 등 다양한 순서가 있었다. 또한, 본당 로비에서는 시각 장애, 청각장애, 보행장애, 난독증, 자폐증 등 실제 장애인들이 겪는 바와 흡사한 체험 또는 간단한 느낌을 체험하는 다섯 가지 장애 체험관을 통해 장애를 몸으로 직

접 느껴보았고, 장애인에 대한 예절과 인식 계몽을 위한 짧은 영상들을 보며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다음은 유치부에서 장년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이 체험관에서 다양한 장애를 경험한 후 작성한 체험 소감이다.

\*학습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인내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자폐증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생겼다. 체험 전에는 그들을 위험한 존재로 인식할 뻔했지만, 설명을 듣고 이해가 증가했다.(자폐증)

\*주변에서 재촉하고 비난하는 소리는 바로 좌절감을 더 느끼게 합니다. 난독증... 관심도 없었는데 관심이 늘 필요하고 필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난독증)

\*청각장애를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잠깐동안 듣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청각장애)

\*가는 방향을 몰라 힘들었고 볼 수 있다는데 세상 감사를 느꼈습니다. (시각장애)

\*누가 계단 만들었어!! (보행장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이, 더 깊게 다가가는 우리 모두의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 행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정된 사랑을 실천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을 얻게 되었으면 한다.





## ‘에피보이 준영이, 하나님 닮았어요’



저와 제 처가 결혼하고 8년 후에 준형이가 태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아기였고, 걸모습이 저를 똑 닮았었기에 그 기쁨이 더욱 컸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가면서 또래들과는 달리 발육이 늦고 많이 울며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자폐증 진단 후 치료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이게 아닌데... 하는 마음이 조금씩 들어갔지요. 아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아내와 달리 저는 부끄럽게도 이 문제를 외면했습니다. 일터에서 늦게 퇴근하였고 교회 일에 열심이었지만, 이 뒷면에는 아이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내는 홀로 아이를 돌보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형이가 여섯 살 때 새 직장을 따라 다른 주로 옮겼습니다. 그동안의 제 잘못을 뉘우쳤고, 앞으로는 아버지로써 준형이를 열심히 키우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준형이가 말을 조금씩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니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준형이의 언어 치료, 소근육 치료 등에 더욱 열심을 내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자연에서 또는 집에서 가족 간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준형이가 자라가면서 그를 키우며 느끼는 어려움도 점점 커졌습니다. 강한 자기 생각으로 매사에 독특한 행동을 해대는 아이와 함께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가면 한시도 마음을 못 놓고 남들의 시선이 의식이 되면서 차라리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편했습니다. 왜 저렇게 제멋대로이고 저 정도밖에 하지 못할까 하는 탄식, 일일이 돌보아주어야 하는 피곤함이 저희 부부를 짓눌렀습니다. 준형이가 나름대로 자신의 뜻과 행동을 보이면 이해하기보다는 버릇을 가르친다고 놀러버리기 일쑤였고, 아이가 고집을 부려 반항할 때는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아버지로써 아들을 제대로 못 키운다는 부끄러움, 돌봄에 지친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아들이 나를 닮아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죄스러움이 늘 제 속을 지배했습니다. 이 마음이 때를 만나면 준형이에 대한 분노로 나타났고, 그 결과 서로 간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만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위해 묵묵히 기도한 가족과 주변 분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통해 저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한 사실을 성령께서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

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사 43:7).” 이 말씀을 통해 준형이가 나를 닮은 내 아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하나님이 우리 준형이를 지으신 목적, 그 삶이 오직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위해 사용하실 존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주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준형이를 사랑하며 귀하게 잘 키워가는 아버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고백 위에서 준형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보듬어나가기 시작했을 때 준형이도 자기 마음을 조금씩 열었고, 저희 둘의 사이는 다시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16살이 된 준형이, 언어와 여러 영역에서 또래에 비해 매우 느린 지적장애아이지만 사람들을 좋아하고 함께하기를 즐겨합니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웃음으로 “Hi ~” 하고 다가가는 ‘해피 보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나 제 아내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준형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차 안에서, 심지어 샤워할 때도 어눌하지만 신나게 찬양합니다. 그날 하루 자신이 한 일을 하나하나 말하며 감사를 드리느라 저희의 저녁 식사 기도는 길어집니다.

몇 개 안 되는 단어를 쓰기에 어떨 때는 준형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못 알아듣습니다. 똑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하면 따뜻하게 받아주기가 어렵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아직도 저는 간혹 하나님께 ‘왜 제게 이러시나요? 제게는 제 아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인가요?’ 하고 묻곤 합니다. 그래도 잘못된 후에 “DADDY, SORRY ~” 하고 말하면서 제 품에 파고드는 준형이가 너무나 고맙고, 이전 행동은 다 잊어버린 채 꼭 안아주게 됩니다. 이러한 저와 준형이를 생각하면서 조금이나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 제게는 큰 은혜입니다.

준형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제까지 받은 기도와 섬김이 매우 큼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한국어로 돌아갈까 고민하다가 준형이의 미래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울던 저를 따뜻하게 안아준 목사님, 역시 눈물과 기도로 응원해주시는 목사님들, 집사님들, 장애인 단체의 섬김이 분들과 다른 가족분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분의 말씀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즐겁게 어울려 사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세대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준형이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것’이 현재 저의 소원이지만, 제가 먼저 천국에 가더라도 그 이후의 준형이의 삶을 지금까지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제 마음에 더욱 강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최영훈 (북부 평원 MK 목장 목자, 2부 호산나 찬양대)



## 장애인 주일 행사 참여 소감문

주위의 어려운 분들에 대해 알게 되면 마음이 쓰였지만, 어떻게 다가야 할지 몰라서, 또는 다른 더 급한(?) 제 일들로 인해서, 또한 이기적이고 게으른 저의 마음에 그러한 관심은 쉽게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항상 단발성으로 끝나버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부담이 더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어느 날엔 맑고 푸른 하늘을 보고 좋은 하루를 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다가, 문득 ‘나에겐 좋은 하루가 누구에게는 힘들고 괴로운 하루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힘든 삶을 주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으나, 거기에 대한 뚜렷한 해답은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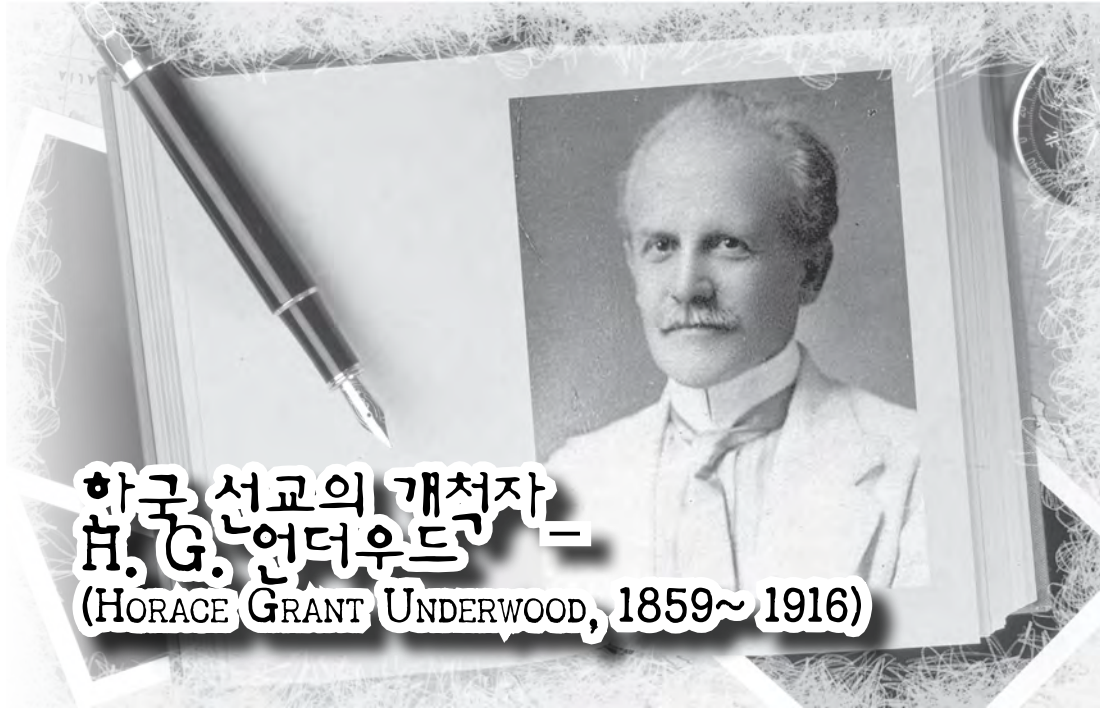
그러던 중, 장애인이 겪는 고난의 의미에 대한 박성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서,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 깊이 자각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저에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뒤, 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장애인 주일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비디오통해 비장애인의 입장이 아닌,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체험학습에서는 눈을 가리고 긴 복도를 혼자서 가는 것을 해보았는데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아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 사역에 대한 김정기 목사님의 세미나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목사님의 사랑과 열정과 고민을 느끼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으로 저를 인도하심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장애인에 대한 저의 관심,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쓴 이 소감문, 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 하심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제가 장애인들을 잘 섬길 수 있을지 걱정도 있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글 남기영 (서부 평원 나고야 목장 목자, 2부 찬양팀)





**한국 선교의 개척자**  
**H. G. 언더우드**  
 (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

언더우드는 한국 선교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선교사이다. 선교 초기 그의 흔적이 묻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그는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양화진 언더우드 家の 가족 묘역에는 4대에 걸쳐 모두 7명이 묻혀 있다.

언더우드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26세의 나이로 한국에 들어왔다. 당시 기독교 전파가 불법인 상황에서도 언더우드는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펼쳤다. 그는 북한 지방으로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가서 그 곳에 있던 많은 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당시 세례 신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로스 선교사와 한국인들에 의해서 만주에서 번역된 신약 성경이 북한 지방에 두루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언더우드는 8살 연상의 릴리아스 호튼과 서울에서 결혼하였는데, 이들은 신혼여행 조차 전도여행으로 다녀올 정도로 선교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다. 언더우드는 의주에서 세례문답을 통과한 33명의 남자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 땅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들 신혼부부는 1600Km 이상을 여행하였고 600여명 이상을 치료하였다.



전도여행 중인 언더우드 가족  
 맨 우측이 언더우드 선교사, 가마 안에 호튼 부인, 가마 옆의 어린이가 아들 윌한경 (HORACE HORTON UNDERWOOD) .....))

언더우드는 미국으로 돌아가 안식년 기간을 보내는 중에도 강연과 신학교 방문 등을 통해서 직접 후배 선교사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였다. 에비슨, 무어, 레이놀즈, 테이트, 리 등이 언더우드의 영향으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선교사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언더우드 타자기의 소유자이던 언더우드의 형(존 토마스 언더우드, JOHN T.)이다.

언더우드는 초대 성경번역위원장을 맡은 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위원장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 하였으며, 한국에 오게 될 선교사와 외국인들을 위해서 손수 영한사전, 한영사전, 한국어 문법서들을 만들어 직접 출판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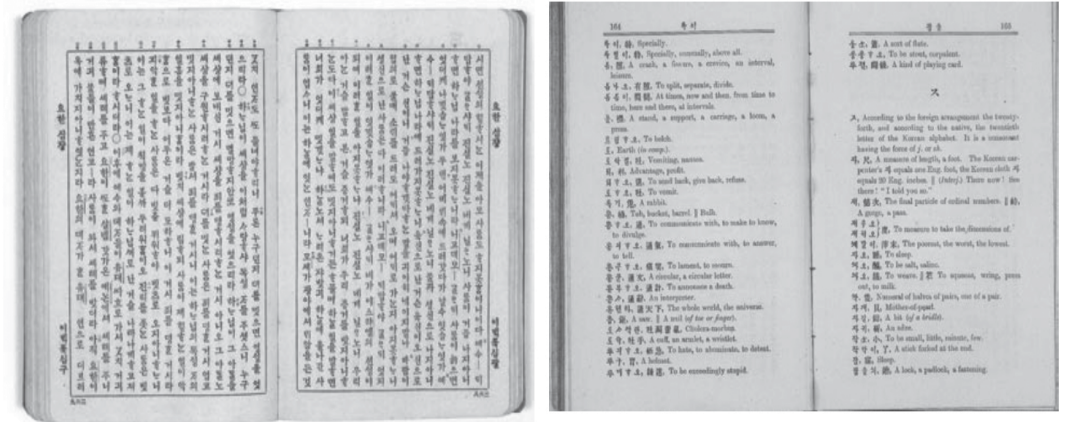
언더우드는 최초의 장로교회인 새문안 교회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또한 그는 '조선기독교대학' (나중에 세브란스 의대와 합해져서 연세대학교가 됨)을 설립해서 초대 학장을 맡는 등 한국 대학교육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언더우드 2세는 아버지를 이어서 조선기독교대학의 3대 교장으로



새문안 교회

학교의 발전에 공헌하였고 한국전쟁 중에는 미군 민간고문으로 일했다. 그리고 언더우드 3세도 연세대학교의 교수와 이사로 봉직하였다.

출처 [HTTP://WWW.YANGHWAJIN.NET](http://www.yanghwajin.net)  
 편집부 정리



언더우드가 만들었던 신약전서와 한영사전

## 신앙생활의 중심은 식탁이다

**가**정교회의 기초단위는 목장이다. 목장은 10여 명 안팎의 사람들이 모이며, 남자와 여자,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인다. 가정교회 성도들은 모두 목장에 소속되어 목장 활동을 하며 목장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목장 식구 혹은 목원이라고 부른다. 목장은 일주일에 한 번 목자와 목원들의 집을 돌면서 모임을 한다. 주로 금요일에 모이는데 목장 모임은 저녁에 식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목장 모임을 간단히 소개하면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갖는다. 자녀들과 찬양을 한 두 곡 부르고 감사 거리와 기도제목을 나눈 후 기도하고 아이들끼리 목장 모임을 갖거나 놀도록 한다. 그 다음에 어른들끼리 모여 다시 찬양 시간을 갖고 20분 정도의 짙막한 성경공부를 한 후에(지난주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으로 성경 공부를 대치하기도 한다). 지난 주일 주보에 실렸던 광고를 나눈다. 그다음에 지난주 모임에서 나눴던 기도 제목이 얼마나 응답받았는지 점검하고 이어서 지난주에 있었던 감사한 일 한가지씩을 돌아가며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한다. 마지막으로 선교지에서 온 편지를 읽거나 VIP 근황을 보고한 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임을 마친다.

목장 모임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중 하나가 '같이 밥을 먹는 일이다. 모이면 일단 같이 밥을 먹고 시작하는데 밥은 반드시 함께 먹도록 하고 있다. 복음은 식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풍성한 잔치로 묘사했고,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풍성한 잔치에 초대하겠다(울 2:14~27)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식탁은 중요했다. 예수님은 주로 잔치 자리나 식탁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다. 예수님에게 식탁이라는 자리는 그저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십자가의 죽음이 예고된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며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천국 잔치를 약속하셨고(눅 22:16, 30)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일도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 먹이시는 것이었다(요21:13).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식탁은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다. 신약 교회 교인들은 집집이 다니며 음식을 먹고 떡을 떤었으며(행 2:46), 공식 예배와 식탁 교제를 구분하지 않았다. 거짓 교사들을 배격하고 죄지은 사람들을 징계하는 방법은 식탁에 같이 앉기를 거부하는 것이었다(요삼 5~8, 고전 5:11). 식탁 교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을 선출할 때 손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을 뽑도록 했다(딤후 3:2). 성찬 또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잔치였다.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양식이 되시는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장차 누릴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자리이다.

목장이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같이 밥을 먹어야 한다.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도 집에서 같이 먹어야 한다. 친한 사람이라도 밥을 사서 대접하는 동안에는 그사이에 거리감이 존재한다. 그러나 집에서 밥상

에 둘러앉아 먹을 때에는 그 거리감이 좁아진다. 깊은 사랑과 나눔이 밥상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집으로 초대하고 음식을 함께 먹어야 한다.

신약 교회에서는 그렇게 천국 밥상이 이루어졌다. 한 식탁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 히브리인과 헬라인, 주인과 상전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갈 3:28). 신약교회의 회복을 추구하는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식탁은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족의 하나 됨을 즐기는 자리다. 목장 모임이 집에서 이루어지고 반드시 식사를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밥 대신 간식은 안 되느냐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간식은 손님에게 대접하는 것이고, 가족은 같이 밥을 먹는다. 목장 식구들은 가족이다.

『가장 오래된 새 교회, 가정교회』 (최영기 저)\_ 중에서





# 쫄깃쫄깃 쫄면

따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2017년 1월이 바로 어제 시작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시원한 물 국수가 끌리는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덥고 지친 몸을 시원하게 달래기 위해 시원한 음식을 찾게 되는데, 그런 여름철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단연 냉면이 꼽히겠지요. 우리 가족은 여름이 되면 냉면을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 때로는 물냉면을 먹든지 비빔 냉면을 먹든지 행복한 고민을 하곤 합니다. 이쯤 되면 제목은 쫄면인데 왜 냉면 이야기만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쫄면에 얽힌 이야기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학창 시절,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집으로 오는 길에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치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꼭 들르게 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분식집이었습니다. 학교 앞 분식집에도 더운 여름철이 되면 '냉면 개시'라는 광고가 붙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친구들이 주문하던 메뉴는 다름 아닌 쫄면이었습니다. 오동통한 쫄면에 매콤달콤 새콤한 비빔 소스, 얇게 채를 썬 양배추, 삶은 콩나물, 삶은 달걀을 함께 비벼 먹으면 그 쫄깃함과 매콤한 맛이 입안 가득 채워지곤 했습니다. 매워서 코끝에 송골송골 맺히는 땀을 휴지로 닦아가며 '하하 호호'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기억이 눈에 선합니다. 쫄면은 면이 쫄깃쫄깃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냉면을 만들다가 우연히 한 가닥 불겨져 나온 굵은 국수 가락이 쫄면으로 탄생한 거랍니다. 냉면보다 굵고 쫄깃하여 씹는 맛이 재미있어서인지 나이 드신 어른신 보다는 어린 학생들에게 더욱 인기가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매주 모이는 목장 모임에 무슨 음식을 해야 할지 메뉴를 정하는 것이 음식을 준비하는 수고로움보다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남편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항상 같은 대답이지요. "그냥 아무거나 간단히 해"라고요. 우리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하게 되었던 어느 날, 그 주는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더운 날 무슨 음식을 할까 고민하던 중, 문득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즐겨 먹던 그 쫄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는 목장 식구가 많은 편이었고 또 더운 여름날 많은 양의 면을 삶고 준비하는 것이 저에게는 좀 도전이 되는 메뉴였습니다. 그렇지만 쫄면을 드시며 좋아하실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었습니다. 결과는 대만족이었습니다. "어 맵다, 맵다" 하시면서도 그릇을 말끔하게 비우시고 "정말 오랫동안 쫄면 먹어 보네요" 하며 "잘 먹었습니다" 하시는 목장 식구들을 보면서 나름 보람을 느꼈던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목장 모임의 메뉴를 고민하고 계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레시피 올려드립니다.

## 쫄깃쫄깃 쫄면 만드는 법

### 재료(4인분)

- 양배추잎 2장
- 오이 1개
- 당근 1/3개
- 콩나물 반 봉지
- 삶은 달걀 2개
- 방울토마토 2개
- 쫄면 국수 400g
- 소금 약간
- 비빔양념장: 고추장2 큰술, 고춧가루 1 큰술, 간장 1큰술, 설탕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깨소금 1큰술, 참기름 1큰술, 유자청 ½ 큰술(없으면 물엿 사용)



### 요리 방법

- 1) 양배추잎, 오이, 당근은 채를 썰고, 콩나물은 데쳐서 준비해 놓는다.
- 2) 비빔양념장을 만들어 놓는다.
- 3) 쫄면 국수를 삶는다.  
(소금을 약간 넣고 삶는다, 찬물에 여러 번 비비면서 헹군다.)
- 4) 삶은 쫄면을 그릇에 담고, 비빔장을 올리고, 채소 고명과 삶은 달걀을 올려서 낸다.

글 김인영 (남부 평원 서부 아프리카 목장 부목자, 편집부 편집팀)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이다.”  
 \_ 앤드류 머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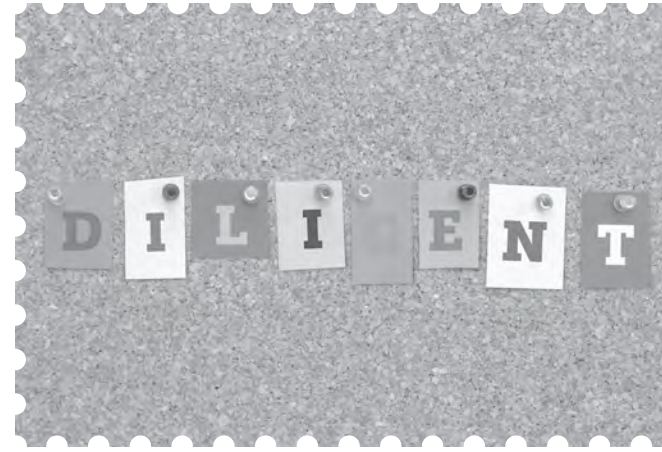
“PRAYER IS NOT MONOLOGUE,  
 BUT DIALOGUE.”  
 \_ ANDREW MURRAY



# 성경의 부피 단위: 에바(EPHA)

여러분들도 혹시 복숭아나, 체리 피킹을 다녀오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오신 부모님과 체리 피킹을 갔었습니다. 보통 체리 피킹을 가게 되면 입장한 후에 농장 안에서 먹는 것은 얼마든지 무한정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체리를 사 오면 됩니다. 일단 체리 농장에 입장하고 나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매력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체리를 먹기도 하고 따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나가려고 하는 데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딱 체리는 모두 다 사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체리 따시는 재미에, 그리고 공짜로 먹게 해주었으니, 먹은 값을 하셔야 한다고 체리를 따주려고 꽤 많은 양의 체리를 따셨기 때문입니다. 미리 공지가 된 내용을 잘 몰랐던 탓에 저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가 딱 체리를 몽땅 다 사 왔습니다.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4식구가 며칠 동안 체리를 원 없이 먹었습니다. 알이 작은 체리였기에 망정이지, 알이 굵은 복숭아였으면 어땠을까요? 부지런하신 부모님의 성격에 아마 복숭아만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을 먹을 뻔 하였습니다.

이렇게 길게 서두를 꺼내는 것은 성경의 룯기에서 룯이 이삭을 줍는 내용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룯기 2장에 보면 룯은 추수를 하고 있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저녁까지 주운 이삭을 재어 보니 한 에바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는 얼마나 되는 양일까요? 에바는 약 22L 정도로, 6갤론이 조금 못됩니다. 되로 말하면 12되 정도 되는 양입니다. 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운 보리 이삭이 22L의 양이라는 말입니다. 룯이 주운 이삭은 보리 이삭입니다. 보리 이삭이어서 쌀이나 다른 곡식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작은 보리 이삭을 주워서 22L를 주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허리를 몇 번 숙이고, 손가락을 몇 번 움직여서 22L를 주었을까요? 룯이 하루에 거둔 한 에바의 보리 이삭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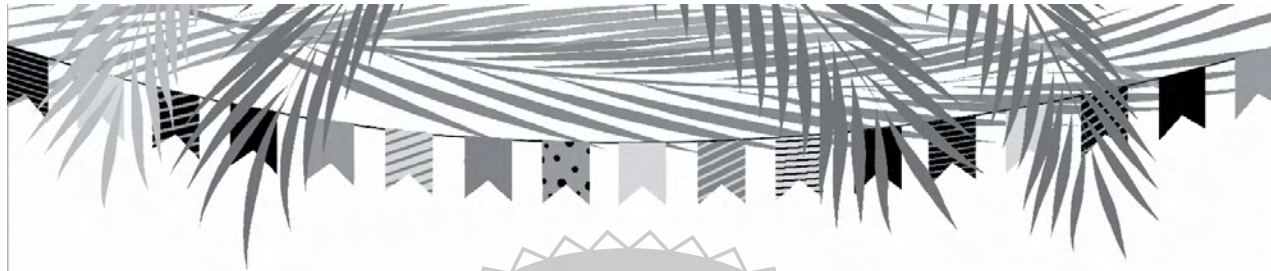
룯은 삶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는 그렇게 많은 양을 거둘 수 없습니다. 보아스는 룯이 우연히 자기의 밭에서 일하기 전부터 룯이 왜 자기 시어머니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지 들었습니다.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룯은 자기 고향에서 남편과 결혼해서 살다가, 자기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은 후 자기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밭에 나가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음식을 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밭에 나왔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오게 되었습니다. 룯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던 보아스는 자기의 밭에서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명령하기를 룯이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책

망하지 말도록 하고, 더 나아가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땅에 버리라고 합니다.

추수하는 사람에게 추수하다가 곡식을 땅에 버리라고 한 것이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삭을 땅에서 한 톨, 한 톨 주어서 22L나 거두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룯에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복을 빌어 줄 만큼 나오미도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복숭아로 22L를 거둔 게 아닙니다. 체리로 22L를 거둔 게 아니죠. 보리 이삭으로 22L나 거두었습니다. 룯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의 도량형을 잘 알지 못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새로운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또한 성경의 도량형을 얹으로 룯이 어떤 여인인지 어렵קות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룯은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매일 매일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결국 나중에 이방 여인이었던 룯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의 부모가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조상인 보아스의 짝으로 모압 여인이자 과부였던 룯을 선택하셨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에바는 22L입니다.

글 박기찬 목사  
(남부 평원, 행정, 관리 위원회 담당)





# 초막절

**왜** 예수님은 생수 설교를 하시면서 크게 외쳐 말씀하셨을까? 간음한 여인을 데려와서 돌로 치려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갔을까?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는 힌트는 본문의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어떤 사회를 알아가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절기나 축제를 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추수감사절을 알게 되면 미국 문화나 가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절기와 문화를 알면 본문을 생생하게 이해하기가 쉽다.

방금 두 질문은 초막절을 알면 금방 답할 수 있다. 구약에는 크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의 3대 절기가 있다. 초막절은 가을 추수 시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추석과 비슷한 면이 있다. 초막절에 하는 행사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초막 만들기, 나무 다발 만들기, 물건기와 등불행사이다. 초막절에서 가장 큰 특징은 초막을 짓는 것이다. 한국에서 추석이면 송편을 빚듯이, 이스라엘에선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다. 조상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기거한다. 온 가족이 초막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경험을 공유하면서, 3000년 전 조상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다.

초막절의 두 번째 특징은 4가지 식물로 다발을 만드는 것이다. 레위기 23:40에 근거해서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화석류 나무가지)와 시내 버들(버드나무 가지)과 아름다운 나무 실과(CITRON, 레몬같이 생긴 새콤한 과일)가 사용된다. 유대인들은 세 나뭇가지로 다발을 엮어서 오른손에 들고, 왼손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CITRON)를 들고 다니며 명절을 즐기곤 한다.

초막절의 세번째 특징은 물건기 행사이다. 초막절이 시작되면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 온다. 이때 많은 순례자들이 그 뒤를 따라 제사장의 뜰로 들어간다. 평소에는 제사장만 출입이 가능한 거룩한 공간이지만, 초막절에는 일반에게도 공개되는 것이다. 대제사장은 이 실로암 샘물을 번제단에 붓는 의식(관제)을 한다. 보통의 경우에 관제는 포도주를 붓는데, 초막절에는 포도주와 물을 함께 붓는다. 초막절 시즌부터 시작되는 이른 비의 축복을 간구하는 의식이다.

또한, 버드나무를 잘라와서 제사장의 뜰에 세워둔다. 백성들은 잘린 버드나무가 금방 말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이 없으면 죽을 수 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를 내려 주시길 간구했다.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길 외쳤다. “이제 구원하소서(시 118:25)”가 히브리어로 호시어나(호산나)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때 백성들이 이 호산나를 반복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 얻기를 갈망했기 때문이라. 또한,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 찬양대가 은 나팔을 불었고, 순례자들은 그 버드나무 가지를 치면서 잎을 모두 떨어뜨리는 의식을 했다. 시끌벅적한 축제의 마지막 행사였다.

예수님은 왜 “외쳐 가라사대, 누구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 7:37)”고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성전 뜰에서 생수 설교를 하신 것을 생각해보자. 주님은 초막절 행사에 참석하는 유대인들에게 진짜 생수는 실로암 샘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임을 알려주신 것이다. 또한, 축제 마지막의 시끄러운 분위기 중에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큰 소리로 외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 특징은 밤에 열리는 등불 행사이다. 낮에 했던 물건기 행사와 밤에 하는 등불행사는 광야 생활 중에 체험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연상시킨다. 밤에 등불 행사를 하는데, 여인의 뜰 네 모퉁이에 커다란 등대를 세워 불을 밝혔다. 사람들은 불 주위에 모여 밤새 회개의 기도를 하거나, 사죄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해가 뜨면 사죄의 노래를 마무리하고 헤어진다.

간음한 여인을 데려와서 돌로 치려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갔을까? 바리새인들이 밤에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았다. 새벽에 예수님께 데려와서,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공격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만약 치라고 하면 로마법에 저촉되고,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에 저촉되는 그물이었다. 성난 군중들은 돌을 들고 던지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대답하셨다. 놀라운 것은, 그 말씀 한마디에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슬금슬금 사라져 버린 것이다(요 8장).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해서 성난 군중이 일시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물러가 버린 것일까?



이 사건을 이해하는 힌트도 초막절에 있다. 그런데, 방금 돌을 들었던 군중들은 방금까지 밤새 회개하고 사죄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 평소 같으면 돌로 쳤을 것이다. 스데반도 바울도 실제로 돌에 맞았었다. 그런데, 방금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나온 사람들이니, 감히 돌로 칠 수가 없었을 것이라.

이번 화평호에서 우리는 초막절과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살펴보았다. 절기와 문화라는 배경 속에서 성경을 읽어보자. 성경의 배경을 알수록 본문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올 것이다.

글 김인환 목사(서부 평원, 선교 위원회 담당)



## 보좌에 계신 분께 집중하십시오



더운 여름이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성도님들 모두에게 전합니다. 지칠 수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주님을 통해 참된 쉼을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더운 여름이면 몸이 지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나 찬양하는 삶에도 지칠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의 방법을 찾으시나요? 저는 본질로 돌아가고자 애를 씁니다. 내가 왜, 누구를 향해 예배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 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미지로 가득 차 있어서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아 읽기를 꺼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시록에서 장엄한 예배와 찬양의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칠 때, 순도 100%의 예배를 떠올리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본질적이고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이렇겠구나'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다시금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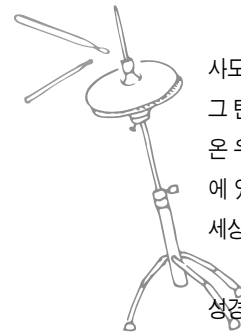
요한계시록을 크게 나누면 네 가지 환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3장을 첫 번째 환상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일곱 촛대'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은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일곱 교회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신 당시의 '지상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일곱 인-나팔-대접'에 대한 환상인데 크게 보아서 계시록 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전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의 주제는 '재림 때까지 세상이 받을 점진적인 심판'입니다. 읽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무서무서한 심판의 모습이 묵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환상의 시작을 여는 4장과 5장은 심판의 서문이 열리기 전에 사도 요한이 하늘의 예배를 목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심판의 모습 이전에 영광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계시록 2~3장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4~5장은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계시록 6~16장까지 전개되는 심판에 대한 서론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17~20장으로 이어지는 세 번째 환상, 다시 말하면 '재림 때 최후의 심판을 받을 세상(바벨론)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암시와 21~22장에 나타나는 '종말의 완성된 교회에 대한 주님의 최종적인 구원'을 보여주는 네 번째 환상에 대한 미리 보기 역할까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4~5장이 주는 위치와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늘의 예배 장면을 묘사하는 4장과 5장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4장의 중심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5장의 중심은 어린양이신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종말에 임할 세상에 대한 최종적

인 심판을 보여주시기에 앞서 4장과 5장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확연하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찬찬히 읽어 보세요. 하늘에 보좌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었습니다(4:2~3). 그리고 그분의 주위에는 어린양(5:7), 네 생물(4:6~8), 그리고 24 장로가 그 둘레에 있으며(4:4), 24 장로들의 바깥 둘레에는 수많은 천사가 있었습니다(5:11). 그리고 천사들의 바깥 둘레에는 모든 피조물이 있었습니다(5:13). 그리고 이들이 다 함께 모여 장엄한 노래를 부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5:12)라고 찬양하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5:13)라며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무슨 그림인가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중심에 계시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주위에서 그분께 모든 찬양할 수 있는 제목들을 다 올려드리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을 대단한 존재처럼 여기지만 이 큰 그림의 어느 바깥 둘레에서 노래하고 있는 작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중심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는 왕이 자신의 권세를 다스릴 때 앉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왕도 쉴 때는 소파에 앉아서 쉽니다. 공부할 때 앉는 의자, 일할 때 앉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좌에 앉을 때는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세상을 통치하며 심판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온 우주와 역사의 통치자가 되셔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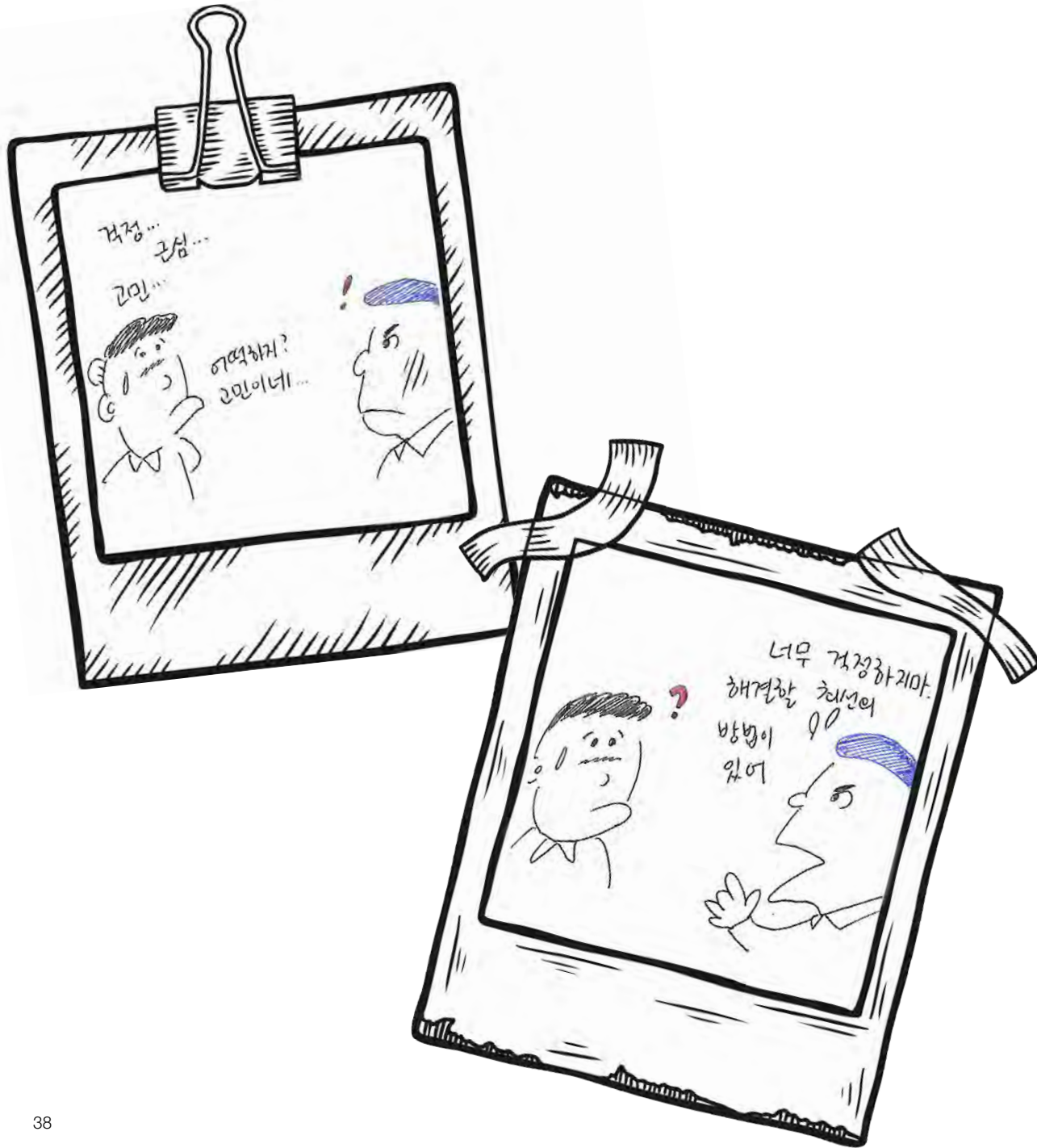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가 보좌에 앉아서 넓은 제국을 다스릴 때의 권위가 땅을 울렸겠지요. 그러나 그 탄압의 시대에도 사도 요한은 진정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을 보며 참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데 대한민국의 권력이 청와대에 있고 미국의 권력은 백악관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권력자들은 잠시 동안 하늘의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작은 권력을 누릴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권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롬13:1).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냐"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간의 역사와 우리 인생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것에 좀 지쳐계신가요? 보좌에 계신 왕께 집중하십시오. 보좌를 바라보며 마음으로 예배하세요. 그분이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옆드릴 뿐입니다. 목소리를 높여 경배할 뿐입니다.

글 박성호 목사 (북부 평원, 화요 여성 예배, 신앙 위원회 담당)





글, 그림 임명진 (2부 호산나 찬양대)

#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P31 (하형록 저)

## 잠언 31장으로 최고의 회사를 경영하다

얼마 전 출장차 산호세를 방문한 친구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커피숍을 약속장소로 정해 만났는데 친구가 적지 않게 놀란 눈치였습니다. 차를 마시고 사람을 만나는 곳이라 예상했던 곳에 모두 1인 테이블에 앉아 랩탑을 보며 조용히 일하고 있던 장면이 친구에게는 생소했던 것입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저 자신도 이곳의 이런 문화에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평호를 준비하며 자료실에서 추천해주신 이 책을 보았을 때, 이 책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읽기도 전부터 항상 일에 치여 사는 남편에게 권해주고 싶은 마음이 치솟았습니다.

“당신에게 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이 일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책의 저자인 하형록 회장은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인 '팀하스(TIMHAAHS)'의 회장이자 오바마 정부 시절 국립건축과학원의 이사로 선임되는 영예를 누린 한인 기업가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형록 회장의 이름 뒤에 따라붙는 단어는 '두 번의 심장 이식 수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잠언 31장'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목회자인 부모님과 함께 한센병 환자촌에서 자란 저자는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이민 오게 되었고, 여느 이민자와 목회자의 자녀와 같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성심을 다해 살아오며 20대 후반에 건축회사의 중역 자리에 오르는 등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생활과 영예로운 사회생활의 한가운데 떨어진 '심실빈맥' 진단은 어느 누구 부러울 것 없던 하형록 회장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놓는 계기가 되었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후 사회에 복귀한 하형록 회장은 잠언 31장의 지혜를 기업이념으로 하는 건축설계회사인 '팀하스'를 설립하였습니다.

'팀하스'는 하형록 회장의 자택 거라지에서 부인과 함께 2인 기업으로 시작할 당시나 굴지의 건축자문기업이 된 현재도 변함없이 잠언 31장의 말씀을 기반으로 채용 인터뷰와 신입사원 교육을 시작합니다. 고귀한 성품을 가진 회사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인정을 베푸는 회사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며 맡기며), 높은 목적을 가진 회사 즉,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 ('팀하스'의 창업 정신, 20절,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가족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회사 (28-29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회사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의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는 회사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등 잠언 31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총 20여 개의 분야에서 하나님 기업의 성공 전략을 해설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업을 만들기 위한 하형록 회장의 기업설계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1) 비즈니스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매 순간 치열하게 싸워야 하며 자기희생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형록 회장은 자신을 낮추고 손해 보는 쪽을 선택하며 고객과 관계를 맺었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신뢰가 되어 더 큰 비즈니스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2) 소명을 붙들 때 은사도 빛난다.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명사가 아닌 동사로 표현하여 '되는 것'이 아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형록 회장은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의사'라는 장래희망보다는 '고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장래희망을 품게 할 때, 소명을 가진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 관계의 비결, 결정적 순간을 활용하라.

하형록 회장은 인사 담당자를 통해 어려움이 있는 직원의 소식을 꼭 챙겨 듣고 함께 나누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일대일의 관계를 키운 직원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자신의 사람으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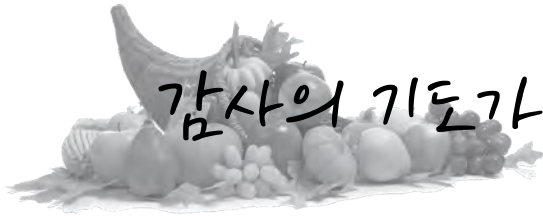
4) 이웃 사랑은 놀라운 축복의 열쇠다.

하형록 회장은 기업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가 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유익한 만남을 가졌는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는가에 중점을 두어 기업을 운영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기업 정신을 가진 '팀하스'는 하형록 회장이 두 번의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까지 다른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시작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잠언 31장의 말씀을 한 구절씩 정독하였습니다. 어떻게 직장에서 신앙과 비즈니스의 영역을 함께 영위할 수 있을까? 의문과 의심이 끊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말씀을 붙잡은 비즈니스를 꿈꾸는 성도 여러분께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비단, 기업경영자와 직장인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도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P31'은 성경적인 믿음과 가치에 뿌리를 둔 성공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소망하는 양육 비즈니스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기라성 같은 IT 기업들이 줄지어 선 실리콘밸리, 하룻밤 만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 기업과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잊혀져버린 과거의 스타 기업이 공존하는 이 삶의 현상이, 더 많은 기업인들이 이 책을 워크북으로 삼음으로써 속이 꽉찬 하나님의 기업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잔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의 추천사에 소개된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한 팀하스(하형록 회장)의 두 개의 심장에 관한 이야기, 그 쿵쿵 뛰는 심장을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 김연희 (북부 평원 모리타니아 플라 목장, 편집부 편집팀)





#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추수감사절

뜨거운 태양을 머리에 지고 여름의 마지막 인사인 인디언서머를 보내고 나면 이곳 캘리포니아는 성큼 가을의 문턱에 섭니다. 9월이면 일 년 열두 달 중 아직 4개월이 남아있음에도 미국에서의 하반기는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데요, 할로윈을 시작으로 땡스기빙, 크리스마스가 줄줄이 이어져 미국은 끊이지 않는 축제 속에 한해를 마감할 여유도 없이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지내던 가족과 친구가 한자리에 모여 감사를 나누는 THANKSGIVING DAY에 왜 감사를 나누는지, 칠면조와 곡식, 과일도 한가득 차려진 식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잊은 채, 새벽부터 줄지은 소핑행렬과 칠면조 요리 법으로 포장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 = 추수감사절의 유래 =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 거행되었던 1621년의 추수감사절에서 유래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에 올라 신대륙에 도착한 이들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 식량난과 영양실조를 겪게 되었는데 원주민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첫 겨울을 이겨낼 수 있었고, 다음해 그들에게 배운 농사법을 통해 추수에 성공한 청교도인들은 인디언을 초대해 그들이 추수한 농작물과 칠면조 등을 나누며 신대륙에서의 첫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였습니다. 그 이후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 미국 전지역이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게 되었으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 다시 금지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이 추수감사절을 다시 기념하게 된 것은 1863년 링컨대통령에 의해서인데, GODEY'S LADY'S BOOK의 저자인 사라 요세파 헤일(S. JOSEPHA HALE, 1788~1879)여사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건립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기념하는 연례적인 절기로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남북전쟁 중이었지만, 추수감사절엔 남북전쟁도 휴전하였으며, 1863년 링컨의 감사절 선언문은 미국의 교만에 대한 회개의 기도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최고로 정성된 하늘의 혜택을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오랜 세월 보전되고 평화와 번영을 누려왔다. 인구와 부, 국력 면에서도 여느 나라보다 앞섰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우리를 평화로써 지키시고 번영과 풍요, 힘을 베푸신 그 은혜의 손을 망각한 채, 이 모든 복이 우리 자신의 탁월한 지혜와 덕목 때문인 줄 착각하는 헛된 망상과 속임수로 지나왔다. 우리는 쉽사리 깨어지지 않는 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구속과 보호의 은총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자만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는 너무나 교만해졌다. 따라서 이제 의무적으로, 우리가 거슬린 그 능하신 분의 존전에 겸손히 꿇어 나라의 죄를 자백하여 자비와 용서를 빌고자 하는 바이다." (1863년 4월 30일에 발표된 '전국 금식과 겸손, 기도의 날' 선언문)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 정신이 자리 잡은 한국의 추수감사절 또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1904년 11월 11일 첫 감사절을 지켰고, 1908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 2회 대한노회에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감사절로 정하였으나, 그 후 한국에 처음으로 미국의 선교사가 발을 디딘 날을 기념한다는 의미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수정하였다가, 현재는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대신 구약에 나오는 초실절,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 부르는 첫 곡식의 절기를 계승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째 되는 늦봄에 "맥추감사절기"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 =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감사의 문화 =

어린이들에게 "땡스기빙데이가 무슨 날인 줄 아니?" 라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키워드 1번이 "터키"입니다. 우리 안에서 추수감사절이 진정한 감사와 나눔의 시간이 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가정만의 문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 1. 감사의 나무 꾸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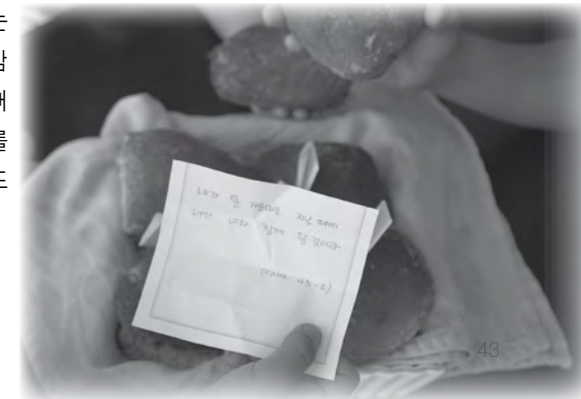
- 준비물 : 나뭇가지, 종이, 펜
- 나뭇가지를 준비해 집안의 벽 한 면에 나무를 꾸밉니다. 가족 구성원이 종이를 나누어 가지고 올 한 해의 감사한 일을 적습니다. "모두"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감사의 글 쓰기를 꺼리고 힘들어 하는 것은 아이들보다 어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각자 적어놓은 감사의 메모를 나뭇가지에 한장씩 접어서 붙여 놓습니다. 한 장씩 함께 열어 보시고, 이 나무를 몇 주, 몇 달 동안 남겨놓아 보세요. 나무에 걸린 사랑과 감사의 메모를 볼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은 더 큰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침을 느낄 것입니다.



### 2. 축복의 빵 나누기

- 준비물 : 디너롤, 종이, 펜
- 이 활동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나누어주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모든 가족이 모이는 추수감사절 테이블에 올라갈 디너롤을 준비하세요. 일인분씩 나눠진 디너롤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적은 메모를 꽂아주세요. 디너롤을 한입씩 깨문 아이들이 메모를 열어보았을 때 아이들의 표정이 상상이 가시나요? 바구니 속의 디너롤이 하나둘 사라져 모두 없어질 때까지 추수감사절 식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언약으로 가득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받은 축복은 또하나의 새로운 씨앗이 되어 자라날 것이 확실하지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신 16:14) 추수감사절은 주위의 불우한 이웃과 함께 나누며 예배함으로 함께 기뻐하는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로 인해 우리도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찬 주일이 될 것입니다.



글 김연희 (북부 평원 모리타니아 플라 목장, 편집부 편집팀)

## 예배와 관련된 용어들

### 1. 대예배 ⇒ 주일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속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큰 예배, 작은 예배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응답의 행위가 예배일인데, 거기에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언제부터인지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를 지칭하여 대예배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많은 교회가 주일 낮 예배 때 가장 많은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말인 것 같다. 그러나 분명히 대예배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한, 어떤 예배도 소예배일 수가 없고 다만 예배일 뿐이다. 물론 시간별로 예배를 구분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주일 예배라든지, 주일 저녁(오후) 찬양 예배, 혹은 시간에 따라 1부 예배, 2부 예배라고 부르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예배'라는 용어는 합당한 말이 아니다.

### 2. 사회자 ⇒ 인도자 (예배 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사회(司會)라는 말은 회의나 의식을 진행하는 일이라는 뜻이 있으며, 사회자라고 하면 마땅히 일반 회의의 진행자를 의미한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아닌 결혼예식이나 임직식 같은 인간 중심의 의식에서는 진행을 맡은 사람을 사회자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현장에서는 단순한 사회자(PRESIDER)의 개념을 넘어 예배 인도자(WORSHIP LEADER)로 부름이 타당하다. 인도(引導)의 사전적 의미는 '알려주며 이끄는 일'이므로 예배 인도라는 말을 회의에서의 사회와 구분 지음이 타당하다. 1998년 총회에서 통과된 표준 예식서에는 모든 예배의 진행자는 인도자(引導者)로, 성례전과 같은 예전의 경우는 집례자로 표기하였다.

### 3. 성가대 ⇒ 찬양대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전담한 찬양대를 최근에 '성가대'로 많이 부르고 있다. 이 말은 출판사들이 흑인영가와 복음송을 합하여 출판하면서 [성가곡집]이라 부르는 데서 보편화되었다. 실제로 1960년대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찬양대라는 이름이 통용되었고 성가대라는 이름은 없었다. 그러나 일본의 '세이카다이\_성가대(聖歌隊)'가 그대로 들어 오면서 '성가대'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다. 성가라는 말은 불교를 비롯하여 모든 종교에서 부르는 노래이며, 우리의 '찬양'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가대'보다는 성경의 정신과 우리의 고유한 이름인 '찬양대'로 바꾸어 부름이 합당하다.

### 4. 준비 찬송 ⇒ 사용 불가

찬송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곡조가 있는 시이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 곡을 붙인 성도들의 경배의 표현이며, 기도이고, 때로는 성도들의 신앙고백과 결단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생각하고 감사의 응답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열심히 찬송 부르는 것을 성도의 바른 자세로 알고 찬송을 열심히 부른다. 그러나 이렇게 찬송의 생활이 습관화 되다 보니 때때로 찬송의 목적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준비 찬송'이라는 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교회에서 "다 같이 준비 찬송 부르면서 앞자리부터 채우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가끔 들을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려야 할 찬송을 자리를 정돈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말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송을 시간을 메우기 위한 수단이나 자리를 정돈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준비 찬송'이라는 용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출처: 『변경된 새로운 기독교 용어』 \_ 한국 장로교 출판사 편집부 정리 및 편집

# '아버지의 자녀양육' 두강후기

한 때 토요일 오후는 저와 아내가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와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 가족 모두가 다양한 주제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랫글은 자녀 양육 세미나를 수강하고 온 저에게 아내가 느낀 이야기를 적은 것입니다. 저만 직접 듣고 배운 과정인데, 아내가 후기를 쓰게 된 것이 함께 해나가는 자식 농사라는 점에서 이 또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자녀 양육에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 시간만큼은 아이들을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남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토요일 오전이 우리 부부가 함께 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데 기대만큼 못하고 오면 시간만 낭비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함께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남편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께서도 남편이 대학에 가고 부터는 마주 앉아 밥 한번 먹은 적이 없으며, 당신께서도 자식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이 많다고 하시면서 단점에 대해서는 특히 외면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못 키웠다는 원망을 듣는 게 싫어서 아예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저 역시 스무 살 넘은 후부터 부모님과 대화의 어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우리도 부모님과 멀어지며 독립이란 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조차 알지 못하는 남편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저이기에 듣기 싫어하는 단점이나, 고쳐야 할 부분을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올 때 남편의 선배가 통로가 되어주더니, 이번 '아버지의 자녀 양육' 과정은 목사님이 그 길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밖에 남편의 귀를 뚫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듣는 건 왜일까요? 심지어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아이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급기야 자기가 잘못된 것이 너무 많다고 회개까지 합니다. 제가 아무 일도 안 해도 귀가 뚫리고 말씀이 들리는 현실이 너무 좋아서 남편이 저를 붙잡고 해주는 수업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고 다음 수업이 기대되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올 때마다 오늘은 또 무슨 충격을 받았는지 신이 나서 설명하는 남편이 신기했고 저는 같이 들으며 함께 신이 난 그것이 다였습니다. 저렇게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은데 저가 굳이 남편의 단점을 들춰냈다가, 기운 빠져서 안 하려고 할까 봐 남편에게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워온 것을 하나라도 더 실천해보려는 모습, 우리 집 문젯거리, 게임 시간까지 아이들과 상의하며 고쳐보려는 노력이 함께 하는 자체로 해결의 희망이 보였고, 그동안 섭섭했던 남편에 대한 마음도 덩으로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제가 혼자 컨트롤할 때보다 훨씬 잘 따라주었고, 대화가 많아질수록 표정도 밝아지고 자기들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우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아버지의 자녀 양육' 과정을 들으며 바로 이거야 하는 한 가지 답을 가져 왔다기보다는 그 과정을 공유하고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어 간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 가족에게 전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편의 반가운 변화에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함께 고민해 주신 김영곤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을 다 아는 게 아니었고 귀를 뚫어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님을 다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글 객백수, 권예주 (북부평원 인도 남부 목장, 새가족부 관리팀)



# 나의 사랑하는 책

작년 여름 산호세지역으로 이사 오면서 몇 년째 소홀했던 교회를 다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혹은 강요에 의해 내키지 않는 마음을 뒤로하고 몇 군데 교회에 나가봤고 그렇게 임마누엘 교회에도 새 가족 등록만 한 채 등록했다는 사실마저 까맣게 잊고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고 전혀 모르는 분으로부터 목장모임에 참석하겠느냐는 연락을 받았을 때만 해도, 교회 모임은 그저 아내를 위해 참석해준다는 마음이었고, 아직 아이가 없는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많은 목장에 참여하는 것이 걱정되어 첫 목장 모임 날까지도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목장 모임에 참석한 이후 너무 사람 좋은 목자님과 부목자님을 만나게 되어 신앙에 여전히 관심이 없던 저도 인간적인 이유로, 또 아내가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이 좋아서 교회도 임마누엘 교회로 다니기로 하고, 목장 모임에도 꾸준히 참석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한때는 뜨거웠던 적도 있고 신앙의 높음과 낮음을 오가던 저는 최근 몇 년간 제 마음속 가득한 불신과 죄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갑게 굳어있던 제 마음이 신기하게도 고작 몇 번의 목장 모임을 하는 동안 조금씩 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하셨는지 두 번째 주일 예배 후 친교실에서 인사하게 된 찬양팀 목자님께서 새 가족 등록도 마치지 않은 저희 부부를 급하게 찬양팀에 섭외하셨고 얼떨결에 찬양팀 연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목장모임을 통해 매일 성경을 읽고, 찬양팀 연습을 통해 매일 찬양을 듣고 부르게 되면서 제 삶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 덕분에 어쩌면 억지로 읽기 시작한 성경이었고 생각 없이 따라 부른 찬양이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들어있었고 찬양을 부르는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열려가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을 절실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누가복음 8:30)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요. 저는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저의 지식과 이해가 믿음을 가로막는 이유였고 변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욕심이 가득한 제 마음은 저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명히 예전에도 읽어봤던 성경 구절을 읽는 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 선과 악의 전쟁 사이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 가득한 이 사단의 군대를 하나도 남김없이 몰아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제 마음, 저 스스로 다스릴 수 없어서 군대가 들어있던 제 마음, 오직 하나님께서만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으로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작은 믿음이지만 더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후로 목장모임과 찬양팀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다닌 후, 이렇게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진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멀리 떠났던 저를 산호세로, 또 임마누엘 교회로 인도해주시고 또 이렇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주 전 찬양팀에서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을 하게 되었는데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라고 시작하는 가사인데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랑하는 책과 헤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씀 읽는 일과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서 이 책이 정말 헤어질 때까지 손에서 놓지 않아야겠습니다.

글 박진오 (북부 평원 탄자니아 목장, 1부 찬양팀)



# 누가 이 분을 모르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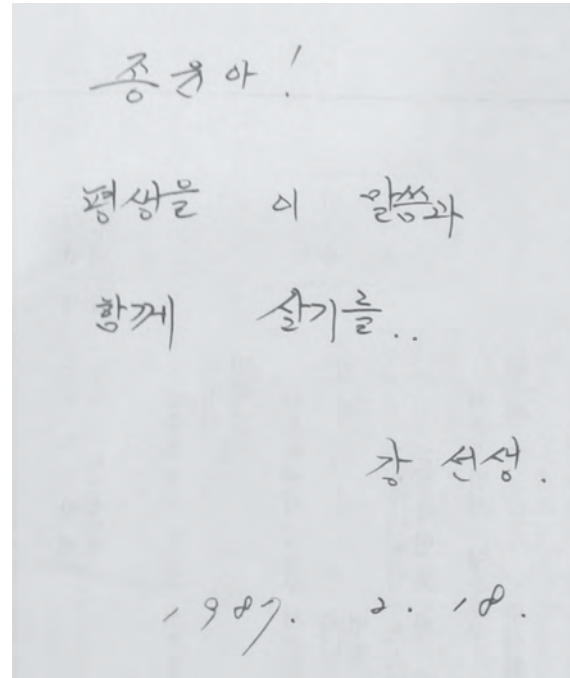
30년 전 나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들려주셨던 분은 내 어린 적 피아노 선생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 같은 나를 부르기 시작하셨는데, 아둔한 나는 그게 싫어서 피아노를 그만두고 선생님과 연락을 끊었다. 할 수만 있다면 찾아뵙고 그때는 몰랐던 감사함을 표하고 싶은데 나는 그분의 정확한 성함도 어디에 사시는지도 모른다. 지금쯤 예수가 훌쩍 넘어섰을 1980년대 화곡동에서 돌체 피아노 교실을 하시던 강 선생님... 누가 이 분을 모르시나요?

“중윤아, 교회 나가라,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 단칸방을 낀 허름한 건물 2층에서 어린 남매를 키우며 억척같이 피아노 레슨을 하시던 선생님이 나에게 뜬금없이 말씀하셨다. 때는 1986년, 난 6학년이었다. 신앙있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결혼 이후 하나님을 떠났던 어머니는 “좋은 말씀 듣는 거니 원하면 교회 가라”고 하셨지만, 우리 집 최고 어른 할아버지께서는 조상 섬기는 것을 제일로 여기셨던 분으로 교회 가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하셨다. 어린 나는 난감했다. 안 그래도 시부모님과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만만치 않은데 내가 교회 가는 것이 또 하나의 빌미가 되고 싶지 않았고, 집 가까이에는 교회도 교회 다니는 친구도 없는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선생님의 압박(?)은 계속됐고, 어렵פות이 한두 번 스스로 교회를 간 기억이 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반대도 있고 딱히 아는 교회도 없는데 어린아이가 무슨 의지가 있어서 일요일 아침 단잠과 꿀잠미 만화를 포기하고 혼자 두세 정거장을 걸어 꾸준히 교회를 가겠는가. 월요일 레슨 때면 어김없이 “예배드리고 왔냐?”는 선생님의 질문이 나를 부

담스럽게 했고, 이말 저말 꾸며서 정체불명의 교회에서 상상 속의 예배를 드린 거짓말을 한 적도 몇 번 있었다. 그럴 때면 선생님은 그냥 웃으시고 “이번 주일엔 꼭 교회 나가라”고 다시 말씀하셨다. 난 이도 저도 못하며 괴로웠고 거짓말의 죄책감도 쌓였고 마침 피아노도 치기 싫던 차에 이 상황을 모면하려 결국 레슨을 끊기로 했다.

‘이제 피아노 레슨을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마지막 레슨 날 선생님께서 나를 방으로 부르셨다. 날이 워낙 추웠는지 바닥에 앉아 담요를 함께 덮고,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이라는 것,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복음을 주욱 들려주셨고, 내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성경을 한 권 주셨다. 검은 가죽 표지에 옆면은 빠알간 옛날식 성경.... 위에서 아래로 쓰여있고 장과 절수가 한자로 적혀있는, 어른이 보기에도 만만치 않은 그런 성경을 믿음도 없는 어린 나에게 주셨다. 당시 정황상 내가 그 성경을 들고 교회 갈 가능성은 0%였고 내 마음에는 그 어떤 감동도 없었다. 그냥 주시니까 받았고, 그렇게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잔뜩 어색하게 들은 후 마지막 인사



를 드리고 훌가분하게 선생님 집을 나왔다. ‘이제 다시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마음 졸이거나 거짓말하거나 선생님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난 받은 성경을 어딘가에 내팽개치고, 선생님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도 까맣게 잊었다. 그날 이후로 선생님은 빈 적이 없고, 우리 집은 1년 후 멀리 이사를 했다.

선생님과의 이별 후 황금 같은 청소년기를 내 멋대로 살았더니, 마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된 둘째 아들 같은 신세가 되었다(누가복음 15장). 방향ही기에도 지쳤고 회복될 수 없다는 확신에 차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기 싫은 여행을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상황을 만드셨고, 난 그렇게 떠난 여행에서 또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 그분은 그때 여행 가이드를 부업삼아 하시던 전도 사님으로,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를 꼭 짚어서 여행 중에 특별 대우(?)를 해 주시더니, 여행 후에도 집요하게 연락하고 밥 사 주고 자꾸만 호의를 베풀었다. 엄마께서 혹 이상한 사람 아닌가 걱정할 정도였으나, 이분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었고 생애 두 번째 성경을 선물 받았

다. 이번 역시 초신자와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 거창한 미니 백과사전 같은 성경이었지만, 새 인생 살아보자고 오른 미국행 짐 속에 나는 그 성경을 고이 챙겨 넣었다. 알지는 못했지만, 웬지 그래야 할 것 같았다. 낯선 땅 미시간에서 교회란 곳을 다시 찾은 그때가, 교회 가기 싫어 피아노 선생님과 이별한 지 꼭 10년이 지난 1997년 1월이었다.

그 후 십수 년의 세월이 흘렀고, 어느 날 문득 ‘나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착각에 빠진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한분 두분 계속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무런 대가도, 기쁨의 보상도, 결과를 알고픈 궁금증마저 다 내려놓고, 도저히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은 구멍 난 장독 같은 나에게 말씀의 물과 사랑의 물을 부어주신 많은 고마운 분들이... 특히 30년 전 어린 나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던 강 선생님의 사랑과 은혜는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밀려와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다. 우리 4남매가 다 선생님의 레슨을 거쳐 갔는데, 막내인 나만 마지막에 선생님께 전도 당(?)해 혼자 믿는 자 된 것을 어찌 우연이라 하겠는가. 시간이 걸렸을 뿐 그분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전 15:58).

피아노 선생님이 주셨던 성경은 지금 우리집 책꽂이에 예쁘게 꽂혀있다. 몇년 전 한국 친정에서 극적으로 찾아 집으로 가져왔다. 삼십년의 세월과 다섯 번의 이사를 거치고도 이 성경은 간재하다. ‘선생님도 그렇게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실까?’ 내 등짝을 때리며 박자를 맞추시던 그분의 투박한 손길이 몹시 그리다. 선생님과의 추억으로 나는 평생을 기쁘게 살리라. 12살 나에게 주셨던 성경의 첫 장, 선생님의 글씨가 살아있는 것 같다.

“중윤아 평생을 이 말씀과 함께 살기를...” 강 선생님  
1987, 2, 18

글 박중윤  
(남부 평원 태국 목장 부목자, 베데스다부 돌보미팀)

# 트립? 미션!!!



**안**녕하세요? 저는 곧 8학년이 될 김희진입니다. 제 오빠가 7학년 때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다녀 온 후, 꿈을 갖게 되는 것을 보면서 미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저도 7학년이 되면 꼭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번에 엄마와 함께 도미니카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게 되어 너무 신났습니다. 왜냐하면, 미션트립인데, 저는 미션은 생각하지 않고, 트립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떠날 시간이 다가올수록, 저는 트립보다 미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팀원이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일도 잘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팀 전체가 매일 밤 9:30분에 기도 약속을 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용기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막상 도미니카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저를 그곳에 보낸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통해 많은 분들이 미션트립에 용기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도미니카에서 3일 동안 하루에 한 교회를 가서 VBS 를 했는데, 케이트는 찬양, 나오미는 게임, 저는 크래프트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가 돌아가면서 캡틴을 했는데요. 그날의 캡틴은, 사역 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각자 임무도 정해주고, VBS도 진행했습니다. 캡틴이 유스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너무 잘 따라 주셨고, 저희들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VBS가 통역으로 진행되었는데도, 아이들이 집중을 잘해 주어서, 정말 재밌고 신나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순수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오후에,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서너 명씩 그룹으로 나누어, 현지인 통역분과 함께 집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거절하고, 귀찮아 할까 봐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반겨주었고, 집에 들어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잘 받아주어서, 너무 신기하고 기쁩니다. 제가 만난 한 남자분은 우리 그룹이 전하는 복음을 다 이해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강요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써 당신 앞으로 한 발짝 다가오셨으니까, 당신도 한 발짝 다가가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 당신은 절대 만날 수 없어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다 알지만, 나중에 믿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이 당신을 아무리 사랑해도, 당신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당신은 지옥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제게 이런 용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희가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그분은 여전히 거절했고,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제 목에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고 나왔습니다.



숙소에서, 동네 아이들과 많이 놀았습니다. 말은 안 통해도, 마음은 통했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자기 팔찌 중에서 하나를 가지라고 해서 하나를 골랐는데, 그것은 찢어졌다고 더 좋은 것을 가지라고 하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찢어졌든 말든 상관 안 하거든요. 그곳은 너무 덥고 물도 부족해서 화장실 사용도 불편하고 샤워도 힘들었습니다. 너무 더운 날 소나기가 와서 아이들과 빗속에서 놀다가 너무 신나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더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영복이 비키니였습니다^\_^, 당황하신 선교사님께서 옷을 입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비키니가 너무 야했나 봐요^\_^, 그 일로, 선교지에 가면 무엇을 하기 전에 꼭 선교사님께 먼저 여쭙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새벽기도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일어나기가 싫었지만, 엄마는 저를 꼭 깨웠습니다. 예배시간에 많이 졸았습니다. 엄마가 "졸더라도 선교사님 쪽으로 졸으라"고 하셔서, 선교사님 쪽으로 몸을 돌려서 졸았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힘든 일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기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팔과 다리를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많이 물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에게 고통의 기억이 아니라, 사랑받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격정해 주었고, 현지인들도 저를 챙겨주고 약도 공짜로 줬습니다. 저는 이번 미션 트립을 통해, 제가 무엇을 해준 것 보다, 받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팀 안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현지인들에게도 사랑만 받다가 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 주신 것 같아요.

단기 선교를 다녀 온 저의 결심은 커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부를 많이 하고 싶고, 돈 때문에 선교 가기 힘든 사람도 도와주고 싶고,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과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어도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저의 미래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이걸로 헐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 말려 주세요.)  
마지막으로, 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을 잘 해낼 수 있게 도와 주신 팀장님, 유스들에게 이모와 삼촌이 되어 주신 코디 부부님, 친구처럼 대해 주신 장로님, 매일 큐티하라고 해 주신 목사님, 우리 유스를 서포트 해 주신 세 엄마들, 그리고 나오미, 케이트...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단기선교를 보내주시고, 간증도 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글 김희진 (중등부 8TH)

# 선교하시는 하나님

단기선교, 막연히 이번 해에 다녀올까 생각하던 중, 선교위원회에서 단기선교부 팀장의 직책을 받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도미니카 선교팀 코디를 맞게 되었다. 팀결성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지만, 도저히 팀이 결성이 되지 않아 팀 인원을 채우기 위해 고민하던 중, 김인환 목사님의 “선교는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며 도미니카 선교에 동참하라는 권고에 고민하게 되었다. 마침 딱 2명이 모자랐는데 아내와 내가 동참하면 5명 인원이 채워질 수 있었다. 아내와 기도하면서 마침 결혼 3주년 기념일과 선교일정이 겹쳐서 이번 결혼 기념일을 선교지에서 보내기로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미니카 선교에 동참하였고, 하나님의 역사 하심으로 더 많은 팀원을 보내주셔서 11명의 도미니카 단기선교 팀을 구성하여 도미니카에 다녀오게 되었다.



하지만, 도미니카 선교 여행의 첫걸음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SFO공항에서 비행기 기체결함으로 지연되면서 환승할 비행기를 놓쳤고, 다른 공항으로 옮겨서 다른 환승 편으로 어렵게 도미니카에 26시간 만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한편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허락하심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삶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왔다. 한사람이 30년을 자신의 편안함과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낙후된 나라에서 자신과 가족의 삶을 주를 위해 바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나는 선교관에서 1주일을 지내면서 그 무더위에 에어컨은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나마 전기조차도 계속 끊기고, 물은 일주일에 2번만 나오는 생활을 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 계속 불평불만만 늘어나고 있는 나에 비해 선교사님은 환경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다. 그분들은 그것에 아무 관심이 없으셨다. 선교사님 부부의 관심사는 하나. 전도하고 주의 제자를 키우는 일, 그리고 도미니카를 위해 기도하는 일, 선교사님은 매년 있는 자연재해로 인한 큰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로 인해 발전하지 못하는 도미니카를 위해 국가기도회를 만들어 전국적인 기도운동을 하고 계셨다. 나는 미국에서 이곳과는 비교도 안 되는 좋은 환경에서 풍족하게 살다가 그 1 주일을 견디지 못해 힘겨워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계셨다.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주님은 나에게 감사를 알게 하셨다.

우리의 팀 사역은 VBS로 시작했다. 우리 팀은 정말 감사하게도 YOUTH GROUP의 KATIE, NAOMI, 그리고 JOYCE, 이렇게 3명



의 아이들과 같이 가게 되면서 VBS사역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VBS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말 수많은 어린이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구제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셨다. 특히 같이 간 YOUTH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른들은 도저히 감당치 못할 귀한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VBS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주일 동안 200명의 아이들과의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다. 현지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아무 거리낌 없이 현지아들과 금세 친해지는 YOUTH들, 주님의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현지 아이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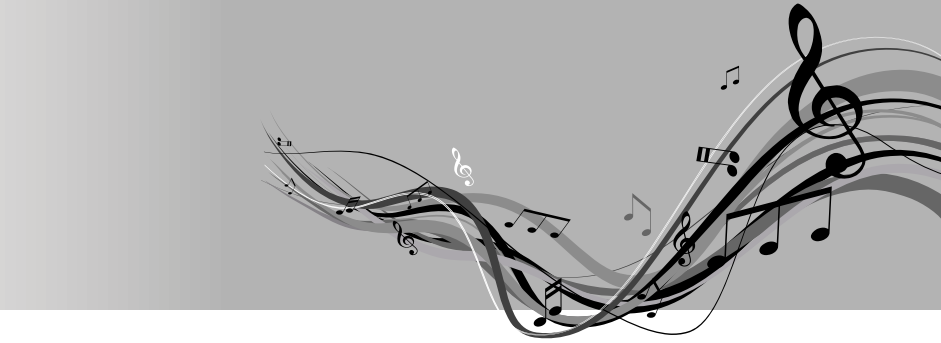
또 다른 사역은 노방전도였다. 노방전도를 나가서 현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며 흐르는 눈물을 볼 때 난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지. 그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생각나게 하셨으며 우리를 통해 지금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졌다고 느꼈고 난 내

가 여기에 왜 왔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하게 되었다.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그냥 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함께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선교나 전도는 용기를 내어 주님께 나의 시간을 내어드릴 때 주님이 하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이번 도미니카 선교를 통하여 확인한 사실은 그 어느 누구나 선교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나이, 경험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선교에 주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단 나라 동역하고 싶으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에게 물어보실 것이다. 같이하고 싶으시다고. 그때마다 항상 준비된 자 되길 기도한다. 먼 훗날 주님을 뵈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수고했다.” 말씀하시면 더이상 뭐가 필요할까? 그 말씀 한마디면 족할 것이다. 그러므로 난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한 나의 물질과 시간으로 준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 팀은 돌아왔다. 하지만 도미니카에서의 주님의 사역을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배턴을 이어받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뜻 안에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글 강태윤 (서부 평원 나고야 목장, 단기선교부 팀장)

# 부정의 힘



난 참 의심이 많고 비판적인 사람이다. 무슨 일을 볼 때 그 일을 곰곰이 보는 법이 없다. 뭔가 꿈꿈이가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놓치는 것은 없을까. 내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상황을 곧이곧대로 보지않는 내게는 “꿈은 이루어진다”든지, “긍정의 힘” 따위의 말은 사람을 선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업적인 표어일 뿐이다.

물론 이런 내 모습을 고치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 부정적인 성향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을 믿기가 도무지 힘들다. 누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면 남들은 “아멘!”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지만 난 고개를 가우뚱거리다. 아니지 않아? 우연일 수도 있잖아. 에이, 그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겠는데? 작년 인도네시아 단기선교회를 갔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한 의료팀이 3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 병자를 낫는 기적을 체험했다. 선교사님과 선교팀 모든 분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감격하고 있을 때, 부정적인 나는 바로 찬물을 끼얹었다. “침술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요? 내일 아침에 다시 가보면 환자가 다시 못 움직이실 수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팀원들은 싸늘한 눈빛으로 날 봤다.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다” 이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뻐 일일세 / 영생하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의심이 아주 없다니. 뭐 저런 축복받은 사람도 있담. 작사자와는 달리 나의 신앙생활은 늘 의심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을 반복하는 험난한 과정이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수많은 의심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내게 확신을 심어주었던 성경 구절로 돌아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곤 했다. 하지만 밥만 먹고 살 수 없듯이, 성경의 진리만으로는 신앙생활이 힘들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이 “증거”였다. 한 번만 하늘에 진형아 난 널 사랑한다고 써 주세요. 제단을 태우는 불까지는 바라지 않으니 기도할 때 반딧불 한 마리만 보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가 그렇게 아까우신지 아무런 기적도 보내주시지 않으셨다. 그런데 542장의 매력은 후렴이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처음에는 여전히 염장을 지르는 고백이 나온다. 작사자님 좋겠수 의심 아주 없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이상하다. 믿음을 더욱 달라니요. 무슨 빈익빈 부익부도 아니고, 아까는 의심이 아주 없으시다면서요. 믿음이 왜 더 필요하실까요. 1절과 후렴은 연결되지 않는 고백 같다.

그런데 이 찬송가와 비슷한 구절이 마가복음 9장 24절에 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 앞에서 꾸지람을 받은 아버지는 덜컥 믿는다고 했지만, 자신이 없어 사족을 달았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충분히 계산적이라고 예수님께 꾸중을 들을 수 있는 고백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들을 바로 고쳐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매력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복음 20장 27절에도 나온다.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넌 저리 가라고 내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신다. “그리하여 믿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그렇게 까칠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심령에게는 언제나 관대하셨다.

부정적인 나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다. 부족한 나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증거는 수도 없이 많다. 비록 그것들이 하늘 문이 열리는 체함은 아니었어도, 내 생활에서 나만 알 수 있는 작은 증거들을 셀 수 없이 겪었고, 그런 증거들을 통해 내 믿음은 의심을 이기고 다져졌다. 저 아직도 의심하는데요. 관찮아, 여기 증거를 보고 믿으렴. 아, 저번에 주신 증거 잊어먹었는데요. 그래, 새 증거를 주마. 인도네시아에서도 선교사님께서 기적이 있었던 다음날 다시 중풍 병자 집을 찾아가서 내 의심을 없애주셨다. 의심-증거-믿음-의심-증거-믿음의 사이클은 부정적인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그래서 나의 부정적인 모습이 저주가 아니고 힘이 된다. 나무로 만든 다른 신이라면 안그럴텐데. 다행히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라는 신은 증거를 통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 이런 증거들만 있으면, 당 떨어질 때마다 꺼내먹는 초콜릿처럼 의심의 폭풍 속에서 증거들을 꺼내먹으며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언젠가는 아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모습까지 성장하겠지. 그때는 얼마나 큰 증거들을 내게 주실까.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증거들을 통해 믿음을 계속 주소서. 지금은 작은 증거들이겠지만, 그 증거들로 조금씩 커나가는 믿음으로 더 큰 증거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주소서. 그리고 내가 가진 증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며 같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해 주소서. 이것이 의심과 부정으로 가득 찬 내가 가진 ‘부정의 힘’이다. 부정의 힘? 제록 좋은데? 나도 책이나 한 권 쓸까.

글 오진형 (동부 평원 나바호 목장 목자, 예배부 미디어팀, 사랑교육부 Kids Club)

# 정작 시간은 시간 1시간 20분



40,000, 이 숫자는 이제 산 지 1년이 지난 우리 집 차가 기록한 마일리지입니다. 우리 가족이 사는 곳은 교회에서 편도로 약 1시간 20분가량 떨어져 있는 몬트레이입니다. 그리고 보니 임마누엘 장로교회에 출석한 지 벌써 7년 정도 되네요. 교회와 집을 오가는 1시간 20분 동안 자동차 안에서는 다양한 진풍경이 연출되는 시간이 펼쳐집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뜻다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 아이들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간, 때로는 아내와 아이들이 편하게 쉬는 시간, 한국어 공부를 겸한 끝말잇기 게임을 하는 시간, 찬양과 설교를 듣는 은혜의 시간, 운전하기 전에 아이들에

게 기도를 가르치는 시간,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는 시간, 가족과 함께 하므로 모두 소소하지만,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따로 있습니다. 두 아들 녀석이 쉴새 없이 재잘거리는 이야기를 듣거나 우스꽝스러운 가사를 붙여 아빠를 놀리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유일하게 아는 한국어 찬양을 성악가처럼 흥내를 내어서 부르기도 하고 Gustavo Dudamel이 지휘하는 드보르작 심포니를 들 때면 절제 있기도 하지만 음악에 심취해 카리스마 넘치게 지휘하는 Gustavo Dudamel 흥내를 내어 마치 곱슬거리는

긴 머리라도 있는 양 머리를 흔들어가며 지휘를 하는 두 아들을 보고 있을 때면 입가에는 아빠 미소로 흐뭇하게 바라보기보다 폭소를 참지 못하기까지 합니다. 이리다 보니 1시간 20분이 어떻게 길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돌아켜 보면 1시간 20분이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우리 가족에게 있었습니다. 2009년 12월, 둘째 노아가 태어나고 이틀째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심각한 장내 출혈 등 여러 병명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학병원 신생아 병동에 입원을 해 있었기 때문에, 주 4회 노아를 보러 전 가족이 샌프란시스코를 오간 7개월이 있었기 때문에 1시간 20분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나 봅니다. 미리 단련을 받은 셈이지요. 노아는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날 무렵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은 했지만, 코에서 위로 연결된 음식을 공급하는 튜브와 핏줄에 특수한 라인을 심어 악몽으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의료 장비와의 싸움은 정말 힘들고 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터널을 통과하면 마치 환한 빛을 맞이하듯 하나님께서는 지쳐 있는 우리 가족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와 기적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렘33:3)”  
2011년 1월, 당시 손원배 목사님 설교 중에서 잊혀지지 않고 머리에 박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당 의사도 포기해 동부에 있는 아동병원으로 이동을 준비하라는 청천벽력과

도 같은 선고가 내려진 무렵, 노아에게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교회를 통해 임했고, 담당 의사조차 기적이라고 했을 정도로 노아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비록 또래 친구들보다는 키가 조금 작고 마르기는 했지만, 아무도 노아를 아꼈던 아이로 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노아는 길가에 나뭇구는 짝돌처럼 아물고 건강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유 한 모금도 받아먹지 않던 노아가 코의 튜브를 빼고 처음으로 우유를 먹던 날, 처음으로 밥을 먹던 날, 그리고 말귀를 알아들을 즈음 누가 고쳐주었냐는 물음에 하나님께서 고치셨다고 대답하는 노아는 아내와 저의 코끝을 수시로 쩍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 믿음 없이 따라간 교회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된 사건을 그날 경험한 이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기에 그저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1시간 20분은 우리 가족에게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맛보러 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지체들과 귀한 교제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는 총만의 시간입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되는 1시간 20분이기도 합니다.

글 손민호 (남부 평원 Guiding light 목장, 3부 찬양팀, 임마누엘 한국학교 교장, )

##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

작년 가을 즈음, 손원배 목사님께서 몇 번의 설교와 목회 칼럼을 통해 본인이 얼마나 '목자 됨'을 사모하는지 고백하신 것이 기억에 남는다. 목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 알려주시며, '내 남편이 죽기 전에 목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남편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생각보다 빨리 주셨다. 손 목사님의 목자, 부목자가 되도록 격려하시는 설교 시리즈가 끝나는 그 주일 예배 후, 우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고 아무 말 없이 목자, 부목자 신청서를 써서 냈다.

그렇게 우리 부부가 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맡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히 여기는 사랑하는 목원분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 우리 목장은 목자 가정포함 모두 4가정이다. 그런데 우리 목장에는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 이 특별한 점을 통해 송규현 목자와 나는 리더라기보다 배우는 학생 같은 마음으로 목원들과 함께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간다.

먼저, 우리 목장의 특별한 점 중 하나는 목자 가정을 제외한 다른 가정들이 영어나 중국말로 대화하는 다문화 가정이란 점이다. 따라서 목장 진행은 영어로 한다. 목자와 나는 둘 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어가 아주 편한 한국 사람이다. 그런 우리가 영어로, 그것도 VIP까지 모시고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목장 초반에 상당히 컸다. 하지만, 이내 그 두려움과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떨쳐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엔 힘과 권위가 있어, 어떤 언어로든지, 심령의 중심을 꿰뚫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일날 설교를 통해 목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눌 때, 지난 예배와 우리 삶에 있어 받은 감동, 어려움을 나눌 때, 언어는 달라도, 서로가 느끼는 감정과 깨달음은 그대로 전달됐다.

두 번째 특이사항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업을 운영하는 목자로 인해 우리는 주일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을 한다. 남편의 사업 때문에 목자, 부목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감사하게도 목원분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주일 오후로 시간을 정해 만날 수 있었다. 우리 목장은 3시쯤에 만나 말씀을 먼저 나누고 식사를 한다. 보통 떡을 먼저 떼는 게 임마누엘 장로교회 목장의 원칙인데, 우리는 말씀을 먼저 보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영의 양식을 육의 양식보다 먼저 먹는 데 있어 집중도 잘되고, 모임에서 나누는 대화의 깊이도 깊은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장의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에 VIP를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사랑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처음 하는 목자, 부목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큰 축복으로 완벽하게 팀을 꾸려 주셨다. 우리 VIP는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몸에 잘 맞지 않을 텐데도, 불편한 내색 없이 상반기 목장 모임 동안 여러 번 참석해 주셨고, 다른 목원분들도 VIP의 질문에 언제나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셨다. 지금까지 기도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 돕고 함께 씨름할 걸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즐겁다.



우리 부부가 목장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율 사역 기간에 들어가, 함께 쌓은 추억이 그리 풍성한진 않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만지심 만큼은 차고 넘침을 느낄 수 있었다. 목자와 나는 목원분들보다 모자란 부분이 많다. 영어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렇고. 하지만, 그런 우리가 목장 모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크고 작게 느껴졌던 우리 목원분들의 삶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의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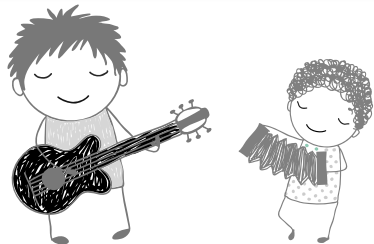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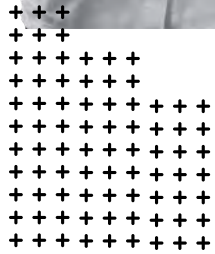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만나 사랑하게 되는 일 같다. 우리 모두 다르게 생각하고 성격도 다

르데, 한 곳에서 만나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일을 먼저 해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모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애하심을 서로를 통해 배운다. 그런데도 매번 넘어지는 나약한 우리 자신을 고백하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서로에게 심긴 우리 사랑의 씨앗에 물을 준다. 그 씨앗이 언젠간 자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응원하며 말이다.

글 김주영 (북부 평원 파키스탄 목장 부목자, 새가족부 바나바 1팀)

2017

UBS







## 오고가며 사랑이 싹트는 곳



임마누엘교회 본당 후문 쪽에 자리 잡은

사랑의 장터는 벌써 10년째 접어들게 됩니다.

사랑의 장터를,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은 어느 부서에도 속해 있지 않고 그냥 안 쓰는 물건이나 의류들을 갖다 놓는 장소로만 알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사랑의 장터는 지역봉사 위원회에 속한 여러 부서 중에 한 부서이며, 그동안은 소수의 봉사자와 함께 일했는데 올해에는 네 분의 봉사자들(한은화, 박영자C, 박창현, 원부강)과,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두 함께 교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다 보면 간혹, 재미있는 일도 있습니다. 한번은 장터 봉사자 중에 걸옷을 그냥 옆에 두고 일을 하시는데, 누군가가 장터에 내놓은 옷인 줄 알고 하마터면 그냥 입고 가실뻔 했지요. 그 당시엔 서로 웃고 말았습니다. 때론 감사와 은혜로운 일들도 생깁니다. 성도님들이 장터에 내다 놓은 옷들과 신발, 기타 물품들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인 네팔로 보낼 때는 마음이 흐뭇하고 보람도 있습니다. 또한, 귀엽고 예쁜 아기들의 옷들도 우리 봉사자들이 열심히 예쁘게 정리해 놓으십니다. 정리하고 남은 옷들은 봉투에 잘 담아 두었다가 우리 사랑의 장터 팀원 집사님께서 가끔씩 Goodwill에 갖다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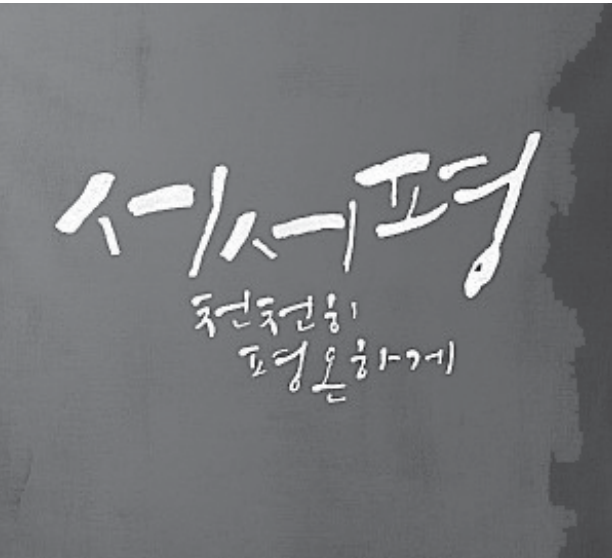
사랑의 장터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우리 성도들이 서로서로 온정을 주고받으면서 필요한 물품들을 서로 나누고 장터에서 가져다가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비록 쓰던 물건이지만,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장터에 갖다 놓으시면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다가 사용하십니다. 특히, 아기용품은 성

도님들이 잘 갖다 놓으시면 찾던 분들이 바로 가져다가 쓰십니다. 장터에 오시면 양쪽 벽면에 책장이 갖춰져 있습니다. 비록 도서관처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여러 책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장터는 오가는 정이 싹트는 곳이랍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사랑의 장터 팀원들끼리 주로 주말과 주일에 봉사를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중보다는 주말에 물건이나 의류들을 갖다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는 세 분의 팀원들이 봉사하고, 주일에는 주로 2부 예배 후에 봉사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비록 팀원은 아니지만, 거의 매 주일 2부 예배 후에 같이 도와주시는, 김종국 장로님도 계십니다. 모두 다 감사하지요. 특히, 사랑의 장터 팀원들이 봉사하실 때 손원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니 더욱 힘이 납니다.

끝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아주 큰 가구 종류는 장터에 비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사이즈가 작은 종류는 성도님들이 갖다 놓기도 하십니다. 한가지 협조 사항이라면, 성도님들이 장터에 오셔서 구경도 많이 하시는데 다 보신 후에는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장터는 항상 깔끔하고 정돈된 사랑이 오가는 장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온정이 끊이지 않고 언제나 사랑이 꽃피는 장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글 유신애 권사 (남부 평원, 상담사역부 부장, 사랑의 장터팀, 친교 1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eakooksong&logNo=220893843092&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영화 <서서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조선 땅을 밟은 후, 20년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다 간 '서서평(徐舒平)' 선교사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Elizabeth Johanna Shepping, 1880~1934),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 선교사는 1912년 32세의 간호선교사로 조선 땅을 처음 밟았다. 천천히, 평화롭고 고요하게 살고 싶어 스스로 '서평'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그녀의 삶은 그녀가 자신에게 지어 준 이름만큼, 과연 천천히 흐르는 평화로운 삶이었을까?

서서평의 삶은 어릴 때부터 녹록치 않았다. 그녀는 독일에서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에는 할머니의 손에서 길러 졌고, 그 시절 부모가 없던 그녀는 늘 외톨이었다. 친구 하나 없던 서평은 빗물과 바람, 햇살을 친구 삼아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녀에게 가장 따뜻하고 달콤한 추억은 어린 시절 홀로 자연을 벗 삼아 놀던 순간이라고 회상한다. 그마저 아홉 살이 되던 해,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린 소녀는 홀로 배를 타고 어머니가 살

고 있다는 미국을 찾아갔으나,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어머니는 서평이 기독교로 개종하자 딸을 집에서 내쫓아 버렸다. 어머니에게 두 번이나 버림받은 서평은 홀로 신학대에 진학해서 간호 공부를 하게 된다.

1912년, 조선은 일제 강점기였다. 서평은 식민지가 된 조선에 제대로 된 교육이나 의료서비스가 거의 없어서 고통받는 조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자신의 배움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주저 없이 조선에 가기로 한다. 서평은 조선인들 가까이에서 그들처럼 살아가고자 애썼다. 한복을 입고, 된장국에 보리밥을 먹었다. 다른 선교사들처럼 특별 구역에 살지 않았고, 월급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학교를 세우는 일에 썼다. 간호사로서 광주 제중원에서 섬겼고, 그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한센 병자들을 돌보아 주었다. 그녀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광주 지역에는 멀쩡한 조선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또한, 간호사로 환자들을 돌보았을 뿐

만 아니라, 간호사들을 양성했고, 조선간호부회를 창립하는 등, 체계적인 간호사 조직을 꾸려내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내었다.

또한 서평은 여성들과 고아들에게 많은 애정을 쏟아부었다. 자신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많은 아픔을 겪어서였을까? 그녀는 14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고아들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리고 식민 치하에서 가장 비참한 위치에서 살아가던 조선 여성들의 삶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이름도 없이 마구 불리던 여자들에게 정성스레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름을 지어주는 일은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서평은 선교하러 왔지만, 조선 여성들을 '불쌍한 무리' 이상으로 바라본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믿음으로 선교지의 사람들을 대환듯했다. 실제로 서평의 제자들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더욱 확실해진다. 그들은 "서서평 선교사에게서의 배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세상의 빛'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얼마나 놀랍고 귀한 고백인가? 후에, 헌신적으로 사람들을 돌보다가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돌아다니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집으로 여성들을 모아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성경공부가 얼마나 좋았던지 찾아오는 여자들이 점점 더 많아져 나중에는 결국 학교를 짓게 되었고, 후에 한국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광주 이일학교'가 된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굶은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내어줄 수 있었을까? 서평은 영양실조와 병으로 죽음에 이르렀을 때조차 조선에 대한 선물을 잊지 않고 장기를 기증했다. 서평이 한평생 살다 떠난 빈방에는 빈쪽 짜리 담요 한 장, 동전 7전, 강냉이 두 홉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방의 한 모퉁이에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 (Not Success, But Service)"이라고 쓰인 글귀가 붙어 있었다. 과연 서평의 삶은 우리에게 성경의 역설을 잘 보여주는 듯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 20:26~28)"

한 시간이 조금 넘는 이 영화는 잔잔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겨 주었다. 우리는 가끔 세상 사람들의 성공한 인생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뜨거운 도전을 받는다. 더 부지런히 살아야지, 더 많이 공부해야지, 성공하기 위해 이런저런 것들을 해야지.... 하고 많은 결심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한다. 그런데 서평의 삶을 본 후에는 잠잠히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이 땅을 떠난 후 누군가 내 삶을 영화로 만든다면, 내 삶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수십 년의 삶이 한두 시간으로 요약되어 진다면, 거기에는 삶의 목적과 여정, 믿음과 태도, 그리고 삶의 열매 등 우리 삶의 엑기스만 담길 것이다. 지금,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에 무엇을 담고 있는 걸까? 생명의 열매로 채우고 있는 걸까? 아니면 가져가지 못할 재물과 이 땅의 권세들로 채우고 있는 걸까? 우리는 과연 조금이라도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고 분하고 섭섭해하고 있는 걸까?

서평의 몸이 머물던 남루한 방에 남겨진 유품들은 보잘것 없었지만, 그 삶의 열매는 놀랍도록 많았다.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고, 이름을 지어주고, 제자와 자녀들을 길러 내고 병자들을 돌보았다. 그녀는 한평생 섬겼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 삶은 과연 그녀의 소망대로 잔잔하고 평화롭게 우리들의 마음에 깊은 도전을 던져 주는 데에도 성공한 것 같다.

글 한연선 (산호세 평원 인도네시아 마나도 목장, 유치K-1부 교사, 편집부 편집팀장)

## 목장, 집에서 모이는 교회 \_ 이도현, 정세연 가족

안녕하세요? 임마누엘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새가족 소개 글을 통해서나마 인사를 드리고 또 우리 가족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름은 쉼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모든 임마누엘 가족분들이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동시에 영적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일 년 전 작년 8월 이맘때로 돌아가 우리 가족이 임마누엘의 식구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8월, 저의 이직으로 인해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산호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갈구해왔던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지라, 몇 번의 고민도 없이 마음의 결정을 내렸고, 제 아내와 아무것도 모르는 두 아이들은 본의 아니게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주민이 그렇듯이 저희도 친구와 가족들이 있는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와서 보니, 낯섦과 허전함이 생각보다 커졌고, 더군다나 악명 높은 물가와 집 가격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감에 간혹 후회감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른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모든 걸 해결해 주시리라는 굳은 믿음으로 그 두려움과 공포감은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 군데 가보았던 교회 중에서도 저희 마음에 와닿는 곳도 없었고 그 후에도 별 진척이 없

던 중 예전 직장 동료분의 소개로 임마누엘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형제자매님들도 우리 가족에게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대충 짐작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금요일쯤 안부 전화를 저와 아내에게 번갈아 하시더라고요. 서둘러 통화를 마무리하고는 토요일에 정신없이 놀다가도 문득 밤이 되면 얼굴도 이름도 생각 안나는 전화 속 그 집사님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전화 주시는데 그래도 한 번만 더 임마누엘 교회에 가보자 하고 아내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도 새 가족 정식 등록은 몇 주 미루고 버렸습니다. 한데, 마치 우리가 오기만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듯한 또 다른 집사님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새가족 등록을 하게 되고, 2주 동안 새가족 모임에도 나가고, 목사님과 사진도 찍고 심지어 목사님께서 모든 새 가족들과 맥에서 저녁을 같이하신다는 걸 듣고 흥칫 놀라며, 또 몇 주 미루다 결국은 목사님 맥에서 새가족 뒷 기수(?)들과 인사와 예배도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자님이라는 분으로부터 목장 식구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선 다시 흥칫 놀라며, 결국 목장 식구분들과 그것도 황금 같은 금요일 저녁에 그것도 매주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단톡방이라는 곳에서는 수시로 카톡의 짧

은 외침과 함께 성경 구절이 시시각각 올라오고, 그다음에는 '아멘'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삼 개월이 지난 지금, 그 이후의 여정이란 이 글을 아직 읽고 계시는 형제자매님들이라면 모두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금요일이 되면 이상하게 잠이 떨어져 있던 가족과 다시 만나는 것처럼 은근한 설렘이 생깁니다. 물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일주일간의 안부를 묻고 웃고 떠드는 교제의 즐거움도 있으나, 더 나아가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과 주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영적인 성장을 향해 서로 독려하며 보듬어주는 모습 속에서 교회 밖의 또 다른 작은 교회를 발견하며 주님의 큰 축복과 복됨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목장을 통해 저희에게 보여 주신 또 하나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항상 성경 말씀에 대한 갈망은 있었으나, 부끄럽게도 교인으로 살아온 20년 넘게도 유일하게 저 스스로 찾아 읽은 성경 말씀은 요한 계시록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목장 식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주시는 성경 통독 표를 따라, 처음으로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열심히 읽어가며 그분의 말씀을 좇으며 배웁니다. 그 안에서 성령을 느끼며, 감사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목장을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가족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침과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장이라는 주님의 선물 이외에도 어린 이 사역을 통해 저희 아이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더 듣게 해주시고, 쫓겨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깨우쳐 주셨으며, 그분의 진정한 어린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행해주신 일들을 생각해보며 동시에 제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접하지 못한 가족들을 생각해봅니다. 우리 가족도 아직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접하지 못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의 전도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기도를 하며 이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글 이도현 (산호세 평원 북한 평안 목장, 2017년 3월 새가족)

## 내게 필요한 오늘의 은혜 \_ 오민선, 마사아끼 가족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은 작년 9월, 하나님의 인도 하심을 따라 이곳 캘리포니아에 왔고, 울봄 임마누엘 장로교회의 새가족이 된 Tomonaga Family입니다. 저희는 남편과 저 그리고, 첫째 Masanobu(7살), 둘째 Megumi(6살), 셋째 Masayuki(3살)를 선물로 주셔서 모두 다섯 식구이며, 남편의 직장 일로 인해 이곳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를 통해 해외 지사로 나가는 일은 어찌 보면 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우리의 상황은 그런 일이 불가능했었기에 그저 마음으로 계획하며 막연하게 바라보지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이 이곳에 와서 살 수 있게 됨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감사함입니다. 저희는 이곳에 오기까지 여러 해 동안 쉽지 않은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어려움의 시작은 늘 평탄하고 큰 문제 없이 지내던 양가 가족들의 삶에 큰 변화를 주었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손에 움켜 쥐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었는지를 알게 하신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보낸 7년 동안의 힘든 시간이 지나고 막연하게 바라던 미국으로의 이주가 가능해졌을 때, 우리 가족에게 기도의 응답과도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준비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뭐 하나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행여나 우리 계획대로 하는 일들은 대부분 얻어지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는 준비 과정들을 통해 철저히 그분만을 신뢰하는 믿음과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는 담대함, 또한 매 순간들의 기다림

과 인내함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상황은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임마누엘 교회에 등록하기까지의 하나님의 인도 하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도로 준비했던 아이들의 교회학교 예배는 교회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언어도 환경도 낯선 아이들이 주일만큼은 편안한 마음으로 잘 적응하며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길 바랐었는데, 첫날 예배를 드린 아이들의 첫 마디가, “엄마, 여기 교회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이 한국말도 해주시고 예배가 즐거워요. 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어찌나 위로가 되고 감사하던지... 어른 예배 또한 은혜로웠던 저에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성령님이 “YES” 하신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목사님 댁에서의 가족 같은 첫 만남과 늘 밝고 친밀한 교회 분위기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긴장되어 있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었고 매주 말씀 가운데 새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뒤돌아보면 지금 우리 가족이 이곳에 와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일상적인 생활을 누리는 것이 기적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나약하고 간사해서 첫 감사의 마음을 곧잘 잊어버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이 터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특히 세 아이를 키우면서 한없이 부족한 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지 못한 저의 하루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늘 지치고 조급한 마음에 하루를 쫓기듯 살아내느라 애를 씁니다. 이

런 일상들로 인해 상한 마음들을 그냥 내버려 둔 채 조금만 방심하면 수많은 이유를 만들어내 그럴듯하게 저 자신을 합리화시켰고 끝내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세 변하는 저 자신이 싫어서 예전에 경험했던 은혜를 붙잡고 버티 보기도 했지만, 그럴 때 마다 더 지치고 힘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일상 속 매일의 넘어짐을 통해 하나님은 헌것을 부어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새것을 매일 새롭게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서 드리는 기도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는 새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혜는 오늘 주님께 의지하며 새롭게 구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안정하고 믿음이 나약하여 불순종할 때도 많이 있지만, 여기 오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알기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오늘의 은혜를 구해봅니다. 또다른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동행 하심이 있기에 담대히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세 자녀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지혜와 그들의 모든 삶의 시간 안에서 하루빨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을 이곳 임마누엘 교회로 인도하셔서 새로운 만남의 축복과 은혜의 나눔을 예비해 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이 있고, 교회 이름처럼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성숙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글 오민선 (남부 평원, 2017년 4월 새가족)



예배와 영혼구원, 양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  
KOREA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www.kepc.org / Tel. 408.263.5100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발행인	손원배
편찬인	박용갑
기획	김정신
진행	한연선/김연희/김정신
사진	김홍배/윤영숙/김범진/안중훈/ 박종현/김홍대
교정 및 번역	김인영/정은하
편집디자인	김유경/홍정희/한 혁/정용익/국세은